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12·3 내란 1년’李 대통령 특별성명 “친위 쿠데타 가담자 엄벌 통합 이유로 타협 않겠다”

‘완전한 내란 청산·극복’ 강조  
재발방지 위한 책임·대책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를 1년을 맞은 3일 특별성명을 통해 ‘완전한 내란 청산·극복’을 강조했다. 12·3 내란 사태가 ‘친위 쿠데타’ 성격이었던 만큼, 가담자를 모두 찾아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한 내란전담재판부나 2차 종합특검에 대해 “국회가 잘 판단할 것”이라며 힘을 실어줬다. 이 역시 불법적인 비상계엄의 후폭풍을 모두 정리해야 통합이 가능하다는 뜻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내고 빛의 혁명을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과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준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했다. 이는 ‘통합’을 이유로 내란 잔재를 완전히 척결하지 않는 것은 ‘붕합’에 불과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내란 잔재 청산 과정을 ‘치명적인 암 치료’에 비유했다.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며, 수술과 같은 고통스러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개혁의 과정은 아픈 곳 또는 끓아 터진 곳을 도려내야 한다. 수술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는 없다”며 “몸속 깊숙이 박힌 치명적인 암을 제거하는 것이다. 암을 치료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런 일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며 “그래서 이 문제는 철저히 진상규명을 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한 합당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통합’을 이유로 내란 세력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도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세력이) 반성하고 재발의 여지가 없다면 용서하고 화합하고 포용해야 하지만 숨겨놓고 적당히 넘어갈 수는 없다”며 “통합이 붕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적당히 미봉해 놓으면 다음에 또 재발한다”고 했다.

이는 앞서 있었던 내란 사태를 제대로 단죄하지 않은 게 12·3 내란을 불러왔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정부 내 ‘헌법준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 설치를 두고 야권에서 ‘공무원 줄세우기’라는 비판을 가하는 데 대해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이며, 진압 과정이라고 해야 한다. 지난 일을 과해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되는 사안을 진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권 및 시민사회에서 강력 요구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국회는 국회가, 행정부는 행정부가 할 일이 있다. 사법부 역시 사법부가 할 일이 있다”며 “국민 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우리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 국민주권 의지를 잘 받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6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韓 배터리 정책, 대부분 ‘재탕’ ‘兆 단위 투자’ 中 대응 위기감

中 투자공세로 차세대 기술 속도  
韓 기존사업 중심 지원 한계 부각  
정부·기업 근본적 투자확대 필요  
현장선 세제·규제 완화 목소리

정부가 향후 4년간 약 2800억원을 투입해 차세대 배터리 기술 상용화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업계에서는 새로 편성된 예산이 아니라 지난 2023년부터 이어져 온 기존 사업이 대거 포함된 만큼 실효성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중국이 조(兆) 단위의 대규모 투자를 앞세워 전고체·나트륨이온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주도권을 빠르게 확보하고 있어 한국이 기술 격차를 좁히기에는 한층 더 불리한 환경이 되고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제시한 ‘K-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에서 밝힌 2800억원 투입 계획에는 이미 2023년부터 추진돼 온 차세대 배터리 관련 예산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전고체·리튬금속·리튬황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사업만 해도 2023~2028년 동안 1800억원이 배정돼 있으며, 올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리튬금속·

리튬공기·나트륨 등 이차전지 원천기술 개발에도 970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성능·안전성 평가와 전극 장비·부품 테스트베드 구축에 약 80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 역시 2022~2030년 장기 과제로 운영되고 있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2800억원은 새로 편성한 예산이 아니라 5년짜리 과제들을 통칭해 적은 것”이라며 “전고체·리튬금속 등 기존 사업의 연차 예산에 더해 올해 시작된 과제들도 있고, 과기정통부에서 추진하는 유사 과제 두세 개까지 합쳐 전체 규모를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 사업은 이미 연도별 계획이 확정돼 있어 신규 금액만을 따로 추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제시된 수치는 2029년까지 예정된 투자 기준일 뿐 아직 확정되지 않은 향후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 규모가 내년부터 새로 투입되는 재원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과제와 아직 끝나지 않은 사업이 포함된 총액에 불과해 일부에서는 총량적 측면에서 차세대 배터리 기술 격차를 좁히기에는 부족한 규모로 보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배터리 삼각 벨트’ 구상도 공급망 기반 확충 차원에서의 의

미가 있으나, 이를 기업의 투자 확대나 생산능력 확대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세제 지원·규제 정비 등 구조적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핵심 광물 중심의 국내 밸류체인 구축 자체는 취지가 좋지만 실제 가시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체감되는 가장 큰 문제는 세제와 규제 같은 구조적 요소”라고 말했다.

반면 중국은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만 지난해 60억 위안(약 1조2450억원)을 투입하는 등 대규모 투자로 차세대 기술 주도권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전고체·나트륨이온 등으로 경쟁 축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어 중국의 이 같은 대규모 재정 투입이 향후 기술 판도를 중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흐름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조 단위로 움직이고 있지만 한국의 투자 규모는 여전히 작다”며 “차세대 배터리는 투자 규모가 기술 확보 속도와 직결되는 만큼 정부와 기업 모두 근본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 野 반발 속 ‘반도체특별법’ 연내 입법 청신호

9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  
주52시간 면제는 빠질 듯

여야가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반도체 특구 지원 등을 규정하는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이달 안에 처리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합의된다면 9일 본회의 처리도 노릴 수 있다. 업계가 염원하던 반도체특별법 연내 입법화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반도체특별법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으로 각국의 자국 반도체 산업 지원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발의됐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설비비용 지원, 대통령 소속 국가반도체위원회 설치, 중소·중견 기업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지원 등이 핵심 골자다.

반도체특별법 논의 초기, 국가가 반도체 산업에 직접 보조금 형식의 재정을 투

입하는 ‘직접보조금’ 논의가 활발했으나 일부 부처의 반대와 산업 간 형평성 논란으로 법안에 담기지는 않았다. 최근엔 국민의힘이 이른바 반도체 기업의 고소득 연구·개발(R&D) 종사자에 한해 주52시간 근로제를 면제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과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이 있음에도 우회로를 만드는 것은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없다며 반대했다.

여야 논의가 공전을 계속하자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고 상임위 논의 기간이 지나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부의 된 상태다.

과반 의석수를 확보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법사위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지만,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산자위에서 막판 협상 중이다. 산자위에서 합의만 되면 9일 본회의 처리까지 노릴 수 있다. 여야는 9일부터 본회의를 여는 안을 합의 중에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고소득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특별법에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대신, 여당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 유연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상임위에서 논의한다’는 식의 부대의견을 달자고 설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특별법에서 국가의 재정 지원 의무 규정을 담은 조항도 국제통상리스크를 고려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산자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보조금 정책 등이 자국 산업에 유리하게 적용돼 다른 회원국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반발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반도체특별법은 가장 핵심인 ‘화이트칼라 이그제션’, 즉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근무 예외 적용이 빠진 ‘팔소 없는 쥘빵’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태홍 기자



▲유병호 “감사원 쇄신TF, 표적 조사…7개 감사 모두 적법·타당”  
▲윤한홍 정무위원장, 쿠팡 현안질의서 “김범석 불출석 강한 유감” /사진 뉴시스

▲與, ‘인사청탁 의혹’에 “매우 부적절하다는 데 이견 없어”  
▲제주도만 12·3계엄 때 적극 대응… 대부분 지자체 ‘팔짱’

▲외교2차관 “인도적 협력, 北주민 삶에 변화 줄 현실적 방법”  
▲내년 국방비 7.5% 증가한 65.8조원… 국회 심의서 4000억원 감액

# 韓-EU, 공급망·경제안보 등 포괄 ‘차세대 전략대화’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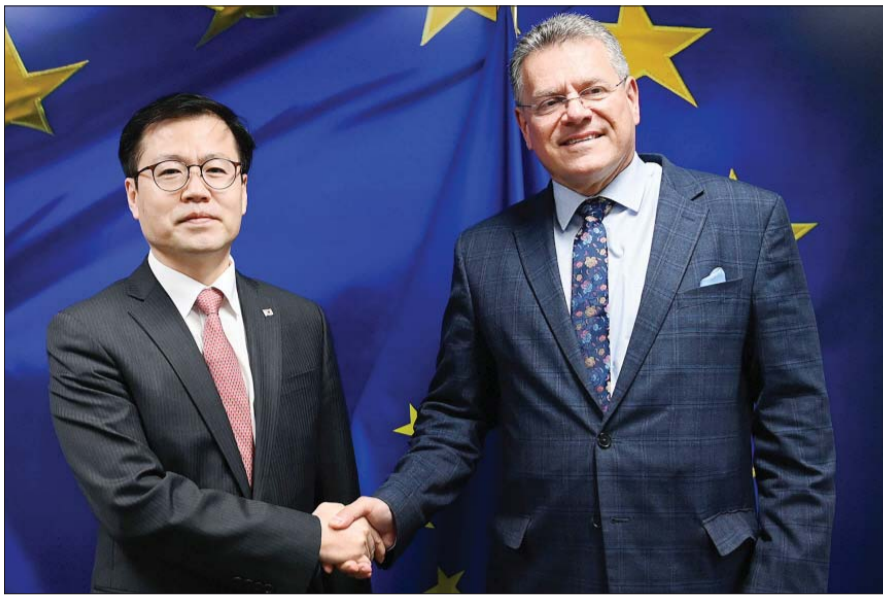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벨기에 방문, 고위급 인사 면담

불확실성 속 협력구조 재설계 한 뜻  
기술패권 경쟁·위기에 공동대응

정부가 유럽연합(EU)과 디지털·공급망·경제안보를 포괄하는 새로운 고위급 협의체인 ‘한-EU 차세대 전략대화(Strategic Dialogue on trade, supply chains & technology)’를 신설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2월 1~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 보리스 부드카 유럽의회 산업연구위원장 등과 면담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양측은 현재의 한-EU FTA 체제가 상품·서비스 교역 중심의 전통적 구조에 머물고 있어, 디지털·공급망·경제안보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의 새로운 전략적 이슈를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인식을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마로시 셰프초비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과 면담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산업부

같이 했다. 특히 미·중 패권 경쟁 심화와 신흥 안보 위협 등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기존의 틀을 넘어 협력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설계(Reshape)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양측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장관급 FTA 무역위를 확대·개편해 내

년 상반기 한-EU 차세대 전략대화를 출범하기로 약속했다.

새로 출범하는 전략대화는 경제안보, 공급망, 첨단 기술 이슈를 포괄하는 최상위 전략 협의체로, 단순한 무역 협의를 넘어 기술 패권 경쟁과 복합 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핵심 컨트롤타워 역

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회담에서는 아울러 ▲EU의 신규 철강 수입규제(TRQ) ▲배터리 규정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체코 원전 역외보조금 조사(FSR) ▲한-EU 디지털통상협정(DTA) 서명 등 핵심 통상현안도 폭넓게 논의됐다.

EU가 내년 6월 철강 세이프가드 종료 이후 도입을 추진 중인 신규 수입규제와 관련해 우리측은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신규 조치가 도입되더라도 한국이 최우선 협상 대상국이 되어야하며, 한국산 철강 수출 물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TRQ 적용 배제 또는 쿼터 확보 등 각별한 배려를 요청했다. 이에 EU측은 “한국을 우선 협상대상국으로 고려하고 있고, 한국 기업 피해를 줄이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우리측이 EU의 배터리법 후속 이행규정의 조속한 확정, 타 EU 정책(음니버스 패키지 등)과의 정합성 고려, 에너지 집약 산업에 배터리 분야를 포함해 줄 것을 요청한데 대해 EU 측은 향후 한-EU 공동 생산 체계 구축의 필요

성을 언급하며 배터리 공급망 중심의 실질적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내년 1월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 우리측이 배출량 산정 기준, 검증기관 요건 등 하위규정 발표 지연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조속 확정을 요구하고, EU집행위가 한수원의 체코 원전사업 수주 관련 불법 보조금 수령 가능성을 문제 삼아 진행 중인 조사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EU 측의 신중하고 공정한 처리를 당부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브뤼셀 방문이 EU의 신규 철강 규제, CBAM, FSR 등 민감 현안에 대해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배터리·디지털·공급망·경제안보 등 미래 협력 의제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고 “향후 EU와의 고위급·실무급 채널을 적극 활용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자유롭고 공정한 통상환경과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장기지속형 의료용 대마 임상준비 순항”

인벤티지랩 ‘IVL5005’  
의약품 후보물질 GLP 독성시험 완료  
미국 FDA 희귀의약품 지정 준비중

약물전달 플랫폼 기업 인벤티지랩이 개발 중인 의료용 대마 장기지속형 주사제가 전임상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전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희귀의약품지정(ODD)을 준비하며, 임상 준비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3일 인벤티지랩은 유한건강생활과 공동으로 진행 중인 의료용 대마 성분인 Cannabidiol(CBD) 기반 장기지속형 주사제 IVL5005의 개발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매체가 IVL5005의 전임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보도한 데 따른 반박으로 풀이된다.

인벤티지랩에 따르면 IVL5005은 국내 최초로 CBD 기반 의약품 후보물질의 GLP 독성시험을 완료했으며, 현재 글로벌 파트너들과 임상 개발 전략을 협의 중이다.

미국 FDA에서 허가된 CBD 주성분

희귀질환 치료제 ‘에피디올렉스(Epidiolex)’는 소아 희귀 뇌전증(LGS, D S)을 적응증으로 하며 국내에서도 수입 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다.

회사에 따르면 IVL5005의 FDA 희귀의약품 지정(ODD)을 준비하며, 글로벌 규제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FDA 사전 상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FDA는 소아 대상 약물의 경우 1개월 이상 장기 지속형 주사제 형태는 편의성·안전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현재 에피디올렉스 역시 매일 3회 이상 경구 투여 중인 점을 감안했을 때 1~2주 간격 투여만으로도 충분한 편의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1세 유아에게 한 달 이상 지속되는 주사제를 투여하는 데 대한 임상 현상의 선호도 문제, 소아 대상 1개월 이상 장기 지속형 주사제 허가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도 FDA가 설명한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다. 인벤티지랩은 FDA 의견을 반영해 1~2주 투여 간격의 개발 전략을 임상 계획에 적극 검토·반영하였으며, 규제기관의 평가 기준에 부합하도록 목표 제품 특성(TPP)을 재정비

해 개발 중이다.

인벤티지랩은 독자적으로 구축한 만성 뇌전증 동물 모델에서 IVL5005 단회 투여만으로도 3주 이상 우수한 항경련 효능을 확인했다. 회사는 이를 소아 희귀 뇌전증 치료제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성과 유효성의 균형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인벤티지랩의 미세유체 기반 장기지속형 주사제 플랫폼 IVL-드러그플루이드(DrugFluidic)는 약물 특성과 개발 목적에 따라 2주부터 6개월(동물의약품은 최대 12개월)까지 다양한 방출기간 설계가 가능한 기술이다. 회사는 이를 기반으로 IVL5005 및 다수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인벤티지랩은 “IVL5005 개발은 유한건강생활과의 협의 아래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도 FDA 및 글로벌 신약 개발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주주 여러분께는 과학적 근거와 규제 기준에 기반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3분기 GDP 1.3% ↑… 3년9개월 만에 최대

한은, 속보치 보다 0.1%p 더 성장  
민간소비·설비투자·수출 상승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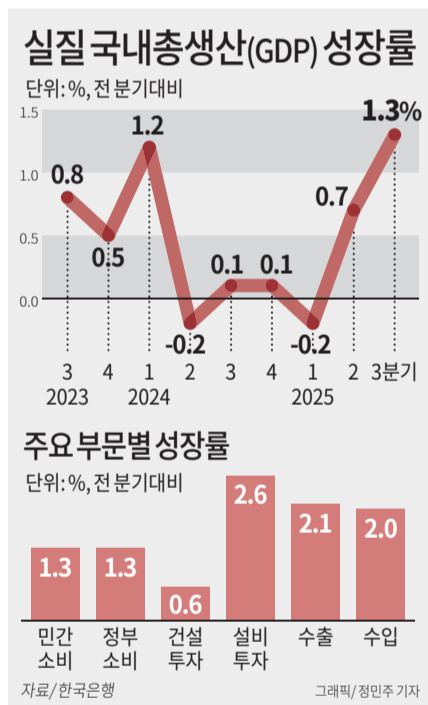
올해 3분기 우리 경제가 속보치보다 높은 1.3%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수출이 모두 늘고 제조업·서비스업이 동반 반등하면서 분기 성장률은 지난 2021년 4분기(1.6%) 이후 3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다만 교역조건이 나빠지면서 실질 국민총소득(GNI) 증가율은 성장률에 못 미쳤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1.3% 성장했다. 11월 발표된 속보치(1.2%)보다 0.1%포인트(p) 상향된 것으로, 속보 추계 때 반영하지 못했던 9월 실적치가 추가 반영되면서 건설투자·지식재산생산물투자·설비투자 등이 상향조정된 영향이다. 전년 동기와 비교한 성장률은 1.8%였다.

생산 측면에선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이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 제조업은 1.5% 늘어 반도체 등이 포함된 컴퓨터·전자·광학기기와 자동차 등 운송장비 생산이 성장을 이끌었다. 건설업은 토목 건설을 중심으로 0.7% 증가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숙박음식, 운수, 금융·보험업 등이 고르게 늘며 1.4% 성장했다.

지출 측면에서도 내수와 수출이 함께 개선됐다. 민간소비는 승용차·통신기기 등 재화와 음식점·의료 등 서비스 소비가 모두 늘어 1.3% 증가했다. 정부소비도 물건비와 건강보험 급여비를 중심으로 1.3% 늘며 내수 회복을 거둬들었다.

투자 역시 개선 흐름을 보였다. 건설투자는 토목 부문을 중심으로 0.6% 증가해 4분기 연속 감소에서 벗어났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



류 투자가 늘면서 2.6% 성장했다.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생산물투자도 1.2% 증가해 플러스 기조를 이어갔다.

대외거래를 보면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가 견인해 2.1% 늘었다. 같은 기간 수입도 기계·장비,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2.0% 증가해 순수출이 성장에 소폭 기여했다. 실질 GDP의 전년동기대비 성장률(1.8%) 역시 수출 회복세가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소득 측면의 회복세는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았다. 실질 GNI는 3분기 전기대비 0.8% 증가해 실질 GDP 성장률(1.3%)을 하회했다.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무역손실이 -8조6000억원에서 -10조3000억원으로 확대된 데다, 실질 국외순수취요소소득도 10조2000억원에서 8조6000억원으로 줄어든 영향이다. 명목 GNI는 전기대비 0.3% 감소했고, 명목 GDP는 0.7% 증가했다.

저축과 투자 지표를 보면 3분기 총저축률은 34.4%로 전기(35.6%) 대비 1.2%p 하락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 韓 유니콘 기업 13개, 세계 11위 그쳐

대한상의, 韓 스타트업 활력 약화  
美 717개, 中 151개, 인도 64개 순서

한국의 유니콘 기업 수가 전 세계 11위 수준에 머무르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한 미국 등 주요국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후 유니콘에 오르기까지 걸리는 성장 속도 역시 세계 평균보다 뒤처지며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활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글로벌 벤처투자 시장조사기관 CB인사이트의 자료를 분석한 ‘글로벌 유니콘 기업 현황’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올해 10월 기준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은 총 1276개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한국 기업은 13개로 전체 11위에 그쳤다. 미국이 717개(56.2%)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고 중국(151개), 인도(64개), 영국(56개), 독일(32개) 등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이후 4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격차는 더욱 뚜렷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229개의 신규 유니콘을 배출하며 전 세계 증가분의 70% 이상을 차지한 반면 한국은 불과 2개 증가하는데 그쳤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영향으로 중국이 19개 감소한 사례를 제외하면, 주요국 중 가장 저조한 성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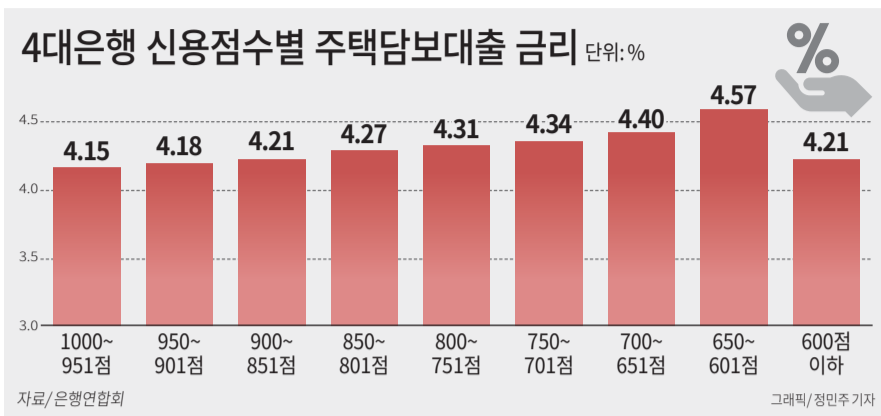
/이승용 기자 lsy2665@

# 고신용자 오르고, 저신용자 내려… 포용금융에 ‘대출금리 역전’

4대은행 신용점수 951~1000점  
대출 금리 0.09%p 오른 4.13%  
600점 이하는 5.86%, 1.43%p↓  
주담대는 저신용자 0.06%p 더 낮아

고신용자의 금리는 올라가고 저신용자의 금리는 내려갔다. 주택담보대출에선 고신용자의 금리가 저신용자보다 높은 금리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은행권에서 저소득 저신용자를 위한 포용금융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의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들은 신용평가사의 개인신용점수에 따라 1000점부터 50점 단위로 총 9개 구간의 평균 금리를 공시한다.

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월에 실행된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신용 점수 951~1000점 기준 평균 4.13%로 집계됐다. 한 달 전과 비교



해 0.09%포인트(P) 올랐다.

KB국민은행은 9월 3.89%에서 10월 3.96%로 0.07%p 올랐고, 신한은행은 같은 기간 4.11%에서 4.23%로 0.12%p 상승했다. 하나은행(4.07%→ 4.16%)과 우리은행(4.09%→ 4.16%)도 각각 0.09%p, 0.07%p 인상됐다.

반면 신용 점수 600점 이하 최저 신용자들의 가계대출 금리는 5.86%로 전달(7.29%)과 비교해 1.43%p 대폭

하락했다. KB국민은행은 8.53%에서 5.27%로 3.26%p 낮아지고, 신한은행은 7.49%에서 5.48%로 2.01%p 내렸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건 은행이 고객 신용 점수나 담보가치 등에 따라 매기는 가산금리를 조정했기 때문이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의 산식으로 정해진다. 기준금리는 신용 점수와 상관없이 평균 2.6~2.

8%대로 비슷했지만, 일부은행이 최저 신용 점수(600점 이하)에 오히려 더 낮은 가산금리를 매긴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이례적으로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4대 은행의 주담대 중 신용 점수 600점 이하의 금리는 평균 4.21%이지만 850~801점인 금리는 평균 4.27%로 고신용자보다 저신용자의 금리가 0.06%p 낮았다. 신한은행의 600점 이하 금리는 3.67%인 반면 951~1000점 금리는 4.14%로 고신용자보다 저신용자의 금리가 0.47%p 낮았다.

신용대출 상승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마이너스 통장의 금리도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KB국민은행은 고신용자(951~1000점, 4.10%)보다 저신용자(600점 이하, 4.09%)의 금리가 0.01%p 낮았고, 하나은행도 고신용자(4.58%)보다 저신용자(3.44%)가 1.14%p 낮았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최근 정부 기조에 따라 취약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금융 상품을 중심으로 금리를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은 “초저금리로 대출받는 고신용자에게 0.1%만이라도 이자부담을 더 시키고 그중 일부로 금융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건 안 되느냐”고 말했다. 10월에는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이른바 ‘금융 계급제’라며 강도 높은 금융 개혁을 강조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저 신용자들의 경우 고신용자보다 상대적으로 대출 모수 자체가 적다”며 “또 저신용자들에게 보통 은행이 각종 정책대출로 지원한 영향이 반영돼 상대적으로 저신용자들의 금리가 더 낮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만능 인증키 10년간 방치… 국민정보 ‘탈탈’

### 개인정보 잔혹사

#### 〈中〉KT

15.7만대 펌토셀 인증키 하나로 관리  
펌토셀, 중계기 넘어 ‘유출 통로’로  
소액결제 피해자 368명, 2.4억 결제

KT가 10년 동안 방치한 ‘만능 인증키’ 하나 때문에 국민의 개인정보가 어이없게 털렸다. 해커들은 KT가 열어둔 틈을 따라 소형 기지국(펌토셀)을 장악했고, SMS 인증번호는 물론 음성 통화 내용까지 유출시켰다.

보안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도중에도 KT는 이를 감지조차 못해 사실상 국가 기간통신망이 장기간 도청·유출에 취약한 상태였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3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 결과 KT 소액결제 사건의 본질은 ‘10년간 방치된 인증키’와 ‘관리 부재’가 만들어낸 인재(人災)로 귀결된다.

이번 사태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은 KT가 전국 15만 7000여 대의 펌토셀을 단 하나의 ‘인증키’로 관리했다는 점

다. 심지어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10년이였다. 통상적인 보안 장비들이 주기적으로 인증서를 갱신하며 보안성을 강화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심지어 이 인증키는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어, 장비 하나만 확보하면 누구나 추출이 가능했다. 결국 해커들은 추출한 ‘만능 인증키’를 이용해 불법 개조한 장비를 정상적인 KT 기지국인 것처럼 위장했다. KT의 코어망은 이들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식별할 수 있는 검증 절차가 전무했다.

더 큰 문제는 펌토셀이 단순한 중계

기를 넘어 ‘정보 유출의 통로’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론적으로 통신 구간은 ‘중단간 암호화(E2EE)’가 적용되어 있어 중간에서 데이터를 가로채더라도 내용을 알 수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일당들은 펌토셀을 장악해 이 암호화 체계마저 무력화시켰다. 불법 펌토셀은 단말기와 통신할 때 ‘암호화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가짜 신호를 보내 보안 기능을 강제로 해제(Downgrade Attack)시켰다. 이로 인해 SMS 인증번호는 물론, 개인정보와 음성 통화 내용까지 평문으로 해커의 손에 넘어갔다. 일부 단말기는 애초에 암호화 설정이 꺼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관리 부실의 심각성을 더했다.

해커들은 이를 통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되는 소액결제 승인 문자를 실시간으로 가로챘다. 368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2억 4000만 원이 결제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펌토셀이 설치된 지역을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통화내용이 도청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전 탈취 범죄로 축소 해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용대 카이스트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태를 두고 “국가 기간통신망에 대한 대규모 도청 인프라가 드러난 보안 참사”라고 규정했다.

/김서현 기자 seoh@

# 고객 건강을 위한 신뢰의 기업 유한양행 100년의 신뢰는 모방할 수 없습니다.



정품 확인은 건강의 첫걸음입니다.  
제품 구매 시 인증 마크가 부착된  
공식 판매처에서 구매하세요.



유한양행

# 삼성전기, MLCC 고부가 수요 급증… 전장·AI 경쟁력 확대

〈적층세라믹콘덴서〉

MLCC 가동률 상승으로 실적 개선  
AI 서버·전장중심 고사양 수요 증가  
초소형·고전압 전장용 기술력 강화  
원재료 내재화로 공급 안정성 확보  
필리핀 중심 글로벌 생산 역량 확대

삼성전기의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생산라인이 ‘풀가동’ 체제에 진입하며 수익성 개선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3분기 말 기준 글로벌 상위 업체 가운데서도 높은 가동률을 기록한 가운데 MLCC의 고사양화와 전장·서버용 수요 확대가 맞물리는 모습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3분기 삼성전자의 MLCC 제품을 담당하는 컴포넌트 사업부문의 생산설비 평균가동률이 99%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 81% 수준에서 풀가동 체제에 진입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스마트폰, 서버, 자동차 등의 고기능화 추세로 MLCC 탑재량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고부가가치로 분류되는 AI 서버용 및 전장용 MLCC는 기술 난도가 높



삼성전기 수원사업장 전경.

/삼성전기

아 삼성전기의 수익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품목으로 평가된다.

MLCC 수요 성장에 힘입어 삼성전기의 3분기 매출액은 2조 889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성장했다. 이 가운데 컴포넌트 사업부 매출은 1조381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세를 보였다.

삼성전기는 소재 기술 및 공정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초소형, 초고용량, 고온, 고압 등을 보증하는 AI서버용·전장용 제품라인업을 확대하며 경쟁사대

비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지난 2월 자율주행용 세계 최고 전압 초소형 MLCC(1005사이즈)를 출시했다.

해당 제품은 2.2마이크로패럿(μF) 용량, 10볼트(V) 고전압을 구현하여 세계 최초로 전장제품 필수 신뢰성 규격 AEC-Q200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 차체, 새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하기 용이하다.

또한 삼성전기는 MLCC의 핵심 기술인 세라믹 원재료를 자체 개발·제조해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삼성전기는 부산사업장에 전장 전용 원재료 공장을 신축해 지난 2020년부터 가동 중이다. 현재 삼성전기는 국내 수원과 부산사업장은 연구개발 및 신기술 및 원료 생산을, 중국 톈진과 필리핀 생산법인을 대량 양산기지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제품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삼성전기는 필리핀 MLCC 공장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1분기부터는 필리핀 소재의 MLCC 양산라인을 증설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전

기 장덕현 사장은 지난 11월 부산사업장에서 페르디난드 마크로스 필리핀 대통령을 만나 필리핀 경제특구청(PEZA) 및 MLCC 투자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기의 견조한 성장세가 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이 같은 흐름은 시장조사기관들의 전망에서도 확인된다. 시장조사기관 마케츠앤드마켓츠는 지난해 말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AI 서버 시장이 지난해 1429억달러(약 196조원)에서 2030년 8378억달러(약 1150조원)로 커질 것으로 진단했다.

자율주행 기능 발전과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 차량용 MLCC 시장 또한 성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모르도르 인텔리전스는 해당 시장이 지난해 4조5000억 원에서 2028년 1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기 관계자는 “삼성전기 MLCC 사업은 산업·전장용을 중심으로 생산능력을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생산 거점 다변화를 병행해 공급 안정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현대차그룹, 美 관세 인하에 반등 시동… 글로벌 판매 증가 ‘청신호’

관세 15%로 인하… 대미수출 기대  
美 HEV 판매 호조로 수익성 개선  
인도·호주 등 글로벌 점유율 견조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관세 불확실성을 털고 글로벌 판매량 확대에 속도를 높인다.

한미 무역협상 후속 조치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가 15%로 인하되면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북미 시장 경쟁력도 강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 관세 압박으로 올 하반기 판매량 감소세를 겪은 현대차·기아는 글로벌 거점 전략을 재정비하고 수익성 확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부터 모든 수입차에 25% 품목 관세를 부과하면서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8



현대차그룹 양재동 본사.

개월 가량 감소세를 이어갔다. 올해 1~10월 대미 자동차 수출은 110만7460대로 전체 수출의 49.1%를 차지한 가운데

전년 동기 대비 7.9%(9만5092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31만6351대·7.7%↑), 중남미(10만7542대·13.6%↑), 아프리카(2만9110대·25.5%↑) 등 일부 지역으로의 수출이 늘었으나 대미 수출 감소를 상쇄하긴 역부족이었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올해 실적을 보면 판매량 뿐만 아니라 수익성 측면에서도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2분기부터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 2분기 3조6016억원, 3분기 2조537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5.8%, 29.2%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은 5.4%까지 급락했다.

다만 미국 관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수익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우선 미국 시장에서는 현대차·기아

가 지난달 미국에서 3만6172대를 팔아 치우며 최다 월간 하이브리드(HEV) 판매량을 기록했다. 고수익 차종인 HEV의 판매 확대로 현대차·기아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실적 개선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은 지난달 UAE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11월 1일로 관세가 소급돼 다행”이라며 “내년 미국 시장이 관망해질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현대차·기아는 인도와 호주 등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호주연방자동차산업회의소(FCAI)에 따르면 올해 1~10월 현대차·기아의 점유율은 13.3%다.

기아는 6.9%로 4위, 현대차는 6.4%로 5위를 기록 중이다. 인도자동차공업

협회(SIAM)도 같은 기간 현대차·기아의 인도 시장 합산 점유율은 약 19%로 인도 완성차 업체 마루티 스즈키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2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기록 중이다. 다만 내수 시장에서의 판매량 감소는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달 국내 시장에서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한 판매량을 기록했다. 기아도 국내에서 1.6% 감소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내수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친환경차 보조금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계획대로 올해를 끝으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종료할 경우 국내 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 한화시스템, 국내 최초 ‘위성용 우주반도체’ 개발 착수

군 저궤도 통신 핵심 기술 국산화  
디지털 빔포밍으로 고속 통신 구현  
K-우주국방 자립 기반 본격 추진

한화시스템이 대한민국 국방우주 기술 자립을 위한 첫걸음인 ‘위성용 우주반도체’ 개발에 착수했다. 순수 국내 기술로 우주반도체를 개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초)소형 위성용 다채널 빔포밍 시스템을 위한 트랜시버 우주반도체 기술’ 과제를 협약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과제를 통해 개발되는 ‘트랜시버 우주반도체’는 군 저궤도 위성통신 실현의 핵심 부품이다.

극한의 우주 환경에서도 지상과 우주 간 통신을 안정적으로 송수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미사일·레이더·군용 통신 등에 활용되는 국방 반도체는 산업용 반도체 대비 훨씬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이 요구되는 특수 기술이 필요하다.

한화시스템이 개발하는 우주반도체의 가장 큰 특징은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 방식의 빔포밍을 지원한다는 점이다.

디지털 신호처리 기반의 실시간 정밀 빔 형성·제어 기술을 통해 초고속·대용량 위성통신 환경을 구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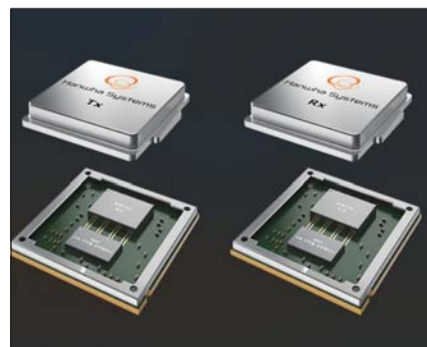
아울러 다채널 구조로 설계돼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주파수 효율성도 개선했다. 적은 수의 반도체 소자만으로도 원활한 통신 기능을 구현할 수 있어 소형 통신위성 탑재에도 용이하다.

군용 우주인터넷으로 불리는 군 저궤도 위성통신은 작전지역 내 통신 음영구역 및 통제거리에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도 끊김이 발생하지 않는 초연결·초고속 통신 서비스다.

고도 500~1200km의 궤도에서 운용되는 저궤도 통신위성은 평시에는 안정적인 유연한 위성통신 기반을 만들고, 전시에는 최후의 통신 수단 역할을 한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2023년 11월 한국군에 최적화된 저궤도 위성통신 솔루션을 제공하는 ‘상용 저궤도 위성 기반 통신체계’ 사업을 착수, 육·해·공군의 기존 전술망과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연동하는 신속시범사업을 수행 중이다. 이번 우주반도체 개발로 인해 미국·유럽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저궤도 통신위성의 국내 개발 또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이번 우주반도체 개발은 자주적인 K-우주국방 실현



한화시스템이 개발할 트랜시버 우주반도체의 예상 분해도 형상. /한화시스템

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한화시스템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첨단 우주자산을 국산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나에게 이로운 AI, 없을까?”

라는 당신의 고민에  
한번 더 생각합니다.

거창하고 어렵기만 한 AI가 아닌.  
고객의 일상에 손쉽게. 쓸모 있게.

은행이 아니라, 나에게 이로운 AI를.

나에게 이롭게. 나에게 AI롭게.

# 나에게 이롭게

모두에게 쉽고 편리하게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는  
**신한은행 AI 은행원**

[ 서울 중구 서소문(시청역 9번 출구)에 위치한 AI 브랜치는  
AI 기술을 적용한 금융 업무를 통해 고객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신한은행 고객센터 (1577-8000, 평일 9시~18시/주말 및 공휴일 휴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사인사전심사필 제2025-11231-1호 (2025.03.26~2027.03.25)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신한은행

# “12·3 ‘국민주권의 날’ 지정”… 헌정사에 ‘빛의 혁명’ 남긴다

》1면 ‘12·3 내란 1년…’서 계속

2차 종합특검, 국회가 판단할 것  
특별수사본부 꾸려 계속 수사해야  
민주주의 위기 평화방식으로 극복  
대한국민, 노벨평화상 받는다면  
갈등·분열 국가들에 전환점 될 것

또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도 “국회가 적절히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게 너무 많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심리전단 살포 작전”을 언급하며 “현재 내란 특검이 끝나더라도 이 상태로 덮어놓긴 어렵다. 특별수사본부든 무엇이든 꾸려서 계속 수사해야 할 텐데 정부가 하는 게 바람직할까”라고 되물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빛의 혁명’을 헌정사에 남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주신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빛의 혁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시민의 힘이었음을 강조했다.

이어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與 “내란 청산·사법개혁 다짐” vs 野 “의회폭거 맞서기 위한 계엄”

### 12·3 비상계엄 1년

與, 시민대행진·기억행사 등 준비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필요”

계엄해제 표결한 장동혁, 사과 없어  
송언석, 초·재선 의원 등 사과문 발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12·3비상계엄 1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 청산과 극복을 위한 개혁에 매진하겠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장동혁 당대표가 계엄은 의회 폭거 때문이라고 메시지를 내는 등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 ◆계엄 1년 맞아 ‘내란 청산’ 강조한 與

더불어민주당은 3일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아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 내란 저지 1년 시민사회 대표단 간담회, 12·3 내란 저지 1년 특별좌담회,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 비상계엄 해제 1주년 기억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 참여를 준비하고 독려하며 바쁜 하루를 보냈다.

정청래 당 대표는 오전 국회 본청 앞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계엄 국회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 쿠데타였다면, 2025년 12월 3일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며 “추경호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고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다면 국민의 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위헌정당 해산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했다”며 “12·3 내란 저지 1년을 맞이해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가 3일 오후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이란 이름으로 법원조

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들은 법원행정처를 사법행정위로 대체하고 법관 징계 처분 강화, 대법관 퇴직 후 전관예우 근절 등을 담았다.

#### ◆계엄 해제 표결했으면서 ‘의회 폭거 탓’이라는 野 당 대표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장 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 새벽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때 찬성 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 중 한 명이었다. 장 대표는 당내 소장과 의원들에게 계엄 1년을 맞아 강도 높은 사과와 반



김용태 의원 등 국민의힘 초선·재선 의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계엄 1년, 성찰과 반성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성을 발표해야 한다는 제안을 받았으나,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았다.

대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2월7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은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해 큰 충격과 불안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뜻을 표한 바 있고, 이 같은 입장은 지금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을 주축으로 한 의원 25명은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12·3비상계엄

은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성취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동이었다”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격은 추락하고, 우리 국민은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겪어야만 했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국민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당대표 시절 발생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했던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국회를 찾아 국민에게 사과했다. 한 전 대표는 국회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여당 당대표로서 계엄을 미리 예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쿠팡 ‘원아یدی’ 정책으로 결제정보 유출 여부 확인해야

정무위, 쿠팡 사태 긴급 현안질의  
금감원, 쿠팡페이 대한 조사 나서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를 불러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결제정보까지 유출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국회 정무위는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이어 3일 오후 국회에서 쿠팡 개인정보 노출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열었다. 긴급현안질의

엔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과 이석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정부 당국자와 쿠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쿠팡이 고객의 결제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금융당국이 결제 정보 유출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쿠팡은 단순한 유통기업이 아니다. 전자지급결제를 대행하는 쿠팡페이, 여신금융사인 쿠팡파이낸스를 거느리고 있다”며 “쿠팡은 회원가입을 하

게 되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쿠팡에 가입되게 하고 있다. (이런바) 쿠팡의 ‘원아یدی(ID)’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쿠팡이 업무방만 유출되고 쿠팡페이가 금융망은 유출 안 됐다고 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지 않았다”며 “쿠팡은 금융망이 침해되지 않았으며 전자금융사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하는데, 거짓말”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2조를 보면 이용자 번호(ID)와 비밀번호를 접근 매체로 규정하고 있다”며 “동일한 아이디로 쿠팡페이에도 자동가입되게 되는데, 접근매체가 명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금법에 따르면 전자금융기반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금융위원장에 알리고 금융감독위원장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어 “금감원에서 쿠팡페이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며 “쿠팡페이 서버 유출 조사, 원아یدی 금융사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2014년도에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가 1억건의 고객정보를 유출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적이 있다”며 “쿠팡페이의 위반 사항도 거기에 준하는 것이다. 그때처럼 강도 높은 제재를 검토해달라”고 이석원 금융위원장에 당부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김 의원의 질의가 끝난 후 박대준 대표이사에게 “결제 정보가 유출되지 않은 것이 맞나”라고 물었다. 박 대표이사는 “현재까지 침입의 흔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송경희 개보위원장은 “조사 중”이라며 “아직 그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 합(合)에서 답(答)을 찾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조화를 이뤄야  
전술은 완성됩니다.

기존의 에너지는 토대가 되고  
새로운 에너지는 동력이 됩니다.

서로의 힘을 합해  
전에 없던 에너지의 답을 내놓습니다.

## 세상이 에너지를 물을 때 이노베이션으로 답하다



# 인터넷은행 포용금융 충족했지만 중·저신용자 확대에 건전성 부담

중저신용 대출비중 33.7% 기록  
카뱅·케뱅·토뱅 모두 30% 달성  
연체율도 0.03~0.08%p 올라  
포용금융 비율 목표축소 지적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 대출 비중이 가계대출의 3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전체 대출 중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기준 신용 점수 하위 50%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한 개인 신용 대출, 개인사업자 신용 대출, 서민금융대출 중 보증 한도 초과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3분기 기준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은 평균 33.7%를 기록했다.

## ◆ 목표치 30% 웃돈 포용금융

카카오뱅크는 3분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32.9%, 신규취급액 기준 35.4%를 달성했다.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 대출을 최저 3% 금리에 공급하며, 중저신용 대출 비중을 늘렸다.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지난해 말 32.2%에서 ▲올해 1분기 32.8% ▲2분기 33.1%까지 오른 뒤 ▲3분기 32.9%로 소폭 하락했다.

케이뱅크는 3분기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33.1%, 신규취급액 기준 33.9%를 기록했다. 케이뱅크의 중·저신용자 대

출 비중은 지난해 말 35.3%에서 3분기 33.1%로 급격히 하락했다.

토스뱅크는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35.2%, 신규취급액 기준 43.7%로 집계됐다. 토스뱅크는 2024년 말 34%를 시작으로 올해 ▲1분기 34.3% ▲2분기 35% ▲3분기 35.2%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높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까지 ‘평잔 기준 30%’만 제시하던 기준에서 올해부터 ‘신규취급액 30%’ 항목을 추가한 상황에서 3곳 모두 기준치를 충족했다.

## ◆ 금융당국, ‘포용금융’ 확대하나

다만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인터넷은행의 연체율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올 3분기 기준 카카오뱅크의 연체율은 0.51%로 1년전(0.48%)과 비교해 0.03%포인트(p) 상승했다. 토스뱅크도 같은 기간 0.99%에서 1.07%로 0.08%p 올랐다.

올 3분기 케이뱅크만 같은 기간 0.88%에서 0.56%로 낮아졌는데 그 이유가 중저신용자 특화모형을 도입한 신용

평가모델(CSS) 3.0을 적용한 것 외에도 중저신용 대출 잔액 비중을 낮췄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포용금융 비율 목표치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금융당국은 정부의 포용금융 확대 정책에 따라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 비율이 적절한지 여러 지표를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인터넷은행에 2026년까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평균 잔액 30%, 신규취급액 30% 이상을 요구했다. 중저신용자가 연체를 할 가능성이 고신용자보다 높으므로,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목표 비율을 지키지 못할 경우 신사업 인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대외적인 이미지도 악화될 수 있기에 어떻게든 맞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추가로 중저신용 목표 비율이 상향되면 건전성 관리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지고, 인터넷은행들의 경영 부담은 크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저축은행 점포·인력감소 가속

수익성 악화에 따른 비용 효율화  
상반기 점포, 전년대비 17개 감소

저축은행들이 오프라인 점포를 통합하거나 폐지해 몸집을 줄이고 있다. 자연스레 임직원 수까지 줄어 들면서 업권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3일 저축은행중앙회 금융통계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저축은행 점포는 총 247개로 지난해 말(257개) 대비 10개가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17개가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점포 감소 폭은 지난해 상반기(11개)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준이다. 지난 2022년에는 상·하반기 각각 6개씩 줄었고, 2023년에는 점포가 상반기 4개, 하반기 2개 감소했다.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경색’ 이후 2024년 상반기에는 점포가 11개 줄며 감소 폭이 급증했고, 하반기에는 7개로 다소 축소됐다. 그러다 올해 상반기 다시 점포 수 10개가 줄었다.

상반기 폐점 점포를 살펴보면, 한국투자저축은행 평택지점, OK저축은행 전주지점, 모아저축은행 수원지점이 1~3월 사이에 문을 닫았다.

이어 4~6월 사이에는 OK저축은행의 대전지점, 동대문지점, 한국투자저축은행의 잠실지점, 다올저축은행의 압구정지점, IBK저축은행 울산지점, 부산중

앙지점, NH저축은행의 이수역지점이 문을 닫았다.

앞으로 저축은행 점포 감소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실제 KB저축은행은 올해 안으로 여의도지점을 폐쇄한다. 이로써 KB저축은행 점포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본점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분당지점 단 두 곳밖에 남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임직원 수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모습이다. 지난달 말과 비교했을 때 올해 상반기 계약직 직원을 포함한 저축은행업계 임직원 수는 9375명으로, 지난해 말 대비 188명이나 줄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감소 폭(-90명)의 두 배를 넘는 규모로, 감원 속도가 더 빨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신규 직원 모집도 감소하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대신저축은행은 지난 2022년 이후 신규 채용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도 지난 2023년 채용 이후 약 2년간 신입 채용이 이뤄지지 않았다.

점포와 인력이 감소한 배경은 수익성 악화에 따른 비용 효율화와 비대면 금융 확산 때문이다.

KB저축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금융 확산 추세에 따라 여의도 영업점을 줄이기로 결정했다”면서 “오프라인 영업점은 최소한으로 운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 신한은행, 생산적 금융에 520억 지원

초혁신·핵심산업 성장지원 패키지  
약 6.9조 규모 신규대출 금리 혜택

신한은행이 초혁신경제·국가핵심산업 및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생산적 금융 성장지원 패키지’를 실시한다.

3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번 성장지원 패키지는 초혁신경제·국가핵심산업 및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신규 투자 자금 지원과 기존 고금리 대출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 프로그램이다. 총 6조9000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 약 520억원의 금리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성장지원 패키지는 ▲초혁신경제·국가핵심산업 영위 기업 대상 신규대출 금리 지원 프로그램 ▲고금리대출 이자 환급 및 원금 감액 프로그램 두 가지로 구성됐다.

먼저 신한은행은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관련 산업과 국가핵심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약 6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에 대해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신용등급을 충족하는 기업이 1억원부터 300억원 이하의 신규 대출을 신청할 경우, 별도 심사를 거쳐 1년간 최대 100bp(1bp=0.01%포인트)까지 금리를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기존 대출의 12개월 이내 연기 시 대출금리가 연 7%를 초과하는 경우 7%를 초과하는 이자금액 중 최대 3%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대출 원금을 자동 상환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12월 준순부터 1년간 시행되며 대상대출 규모는 약 9799억원이다.

다만, 부동산 임대·공급업 등 일부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신용등급 및 최근 6개월 간 원리금 연체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나유리 기자

# 서울 무주택자, ‘청량리 줍줍’에 12.6만명 몰렸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불법 청약에 따른 계약 취소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의 무순위 청약에 12만6000여명 가까이 몰렸다. 서울 거주에 무주택자만 가능했지만 당첨만 되면 10억원 안팎의 차익 기대에 수요가 대거 쏠렸다.

3일 청약홈에 따르면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무순위 3가구 청약에 12만5934명이 접수했다. 이번 물량은 불법 청약에 따른 계약 취소분이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는 전농동 일대에 들어섰으며, 4개동 총 1425세대 규모다. 이미 지난 2023년 7월에 입주자를 마무리한 단지다. 청약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했다. 분양가는 지난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조감도. /롯데건설

2019년 7월 최초 분양 당시와 같은 84㎡ A 10억2930만원, 84㎡D가 10억4460만원이다. 타입별로는 A형 2가구에 7만 6443명, D형 1가구에는 4만 9491명이 신청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의 전용면적 84㎡는 올해 10월 19억 5000만원에 실거래를 신고했다.

시세차익과 함께 토지거래허가나 실거주 등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는 상업지역에 있는 주상복합 단지로 전용 84㎡는 대지 지분이 15㎡를 넘지 않아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와 함께 최초 당첨자 발표일인 2019년 8월부터 3년간인 전매제한 기간도 이미 끝났으며, 실거주 의무도 없어 바로 매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청약 재당첨 제한만 10년이 적용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5일이다. 계약금은 10%로 중도금 60%를 내년 1월 12일까지 내야한다. 나머지 잔금 내년 2월 9일까지 납부다. /안상미 기자 smahn1@

# Sh수협은행, 최민성·이준석 부행장 연임

Sh수협은행은 3일 최민성 기업그룹 부행장, 이준석 여신지원그룹 부행장 연임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최민성 부행장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1994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해 금융기획부 팀장, 송파역지점장, 길동금융센터장, 심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23

년 12월 부행장에 선임돼 2년간 기업그룹 운영을 담당해 왔다.

이준석 부행장은 경남 창원 출신으로 역시 1994년 수협중앙회에 입회했다. 해양투자금융센터팀장, 테헤란로금융센터장, 여의도종합금융본부부장 등을 거쳤으며 지난 2023년 12월에 부행장직을 맡아 2년간 여신지원그룹을 담당했다.



최민성 부행장

이준석 부행장

연임된 최민성 기업그룹 부행장과 이준석 여신지원그룹 부행장의 임기는 오는 2026년 12월 1일까지다. /안재선 기자

# 기업銀, IBK벤처스타트업 이음페스티벌

IBK기업은행이 ‘2025 IBK벤처스타트업 이음페스티벌’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술과 자본의 만남’을 주제로 기술 기반 스타트업을 위해 투자·시장·글로벌 네트워크를 한자리에 연결하는 종합 네트워킹 행사다. 스타트업을 비롯해 VC, 대기업, 유관기관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는 퓨리오사AI, 노아스팜 등

국내외 대표 혁신기업과 DSC인베스트먼트, 사제파트너스 등 주요 투자사가 참여해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투자 유치 및 글로벌 진출 전략을 공유하는 대담이 진행됐다.

이어서 뮌헨테크놀로지스, 아이엠지티, 에스엘엘중앙 등 인공지능, 바이오, 문화 분야를 대표하는 혁신 기업들이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나누는 포럼이 열렸다. /나유리 기자

# LG전자·이노텍, ‘CES 2026’ 참가 AI·미래 모빌리티 기술 선보인다

내달 6일 美서 ‘CES 2026’ 열려  
LG전자, LG 윌드 프리미어 행사서  
고객중심 ‘공감지능’ 진화모습 공개  
LG이노텍, 자율주행·전기차 솔루션  
차량 내부·외부용 센싱 제품 소개

LG전자와 LG이노텍이 오는 2026년 1월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CES 2026’에서 각각 신제품 및 기술을 대거 선보이며 글로벌 기술 경쟁에 나선다. LG전자는 공감지능을, LG이노텍은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소개한다.

LG전자는 CES 2026 개막에 앞서 열리는 글로벌 프레스 콘퍼런스 LG 윌드 프리미어에서 ‘공감지능’의 진화 모습을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공감지능은 AI가 사용자를 더 배려하고 공감해 보다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LG전자가 재정의한 인공지능의 개념이다.

LG전자는 매년 CES 개막에 앞서 그해 전시 주제에 맞춘 혁신과 비전을 사전 공개하는 LG 윌드 프리미어 행사를 열고 있다. 내년에는 1월 5일(현지시간) 오전 8시부터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호텔에서 ‘당신에게 맞춘 혁신’을 주제로 열린다.

LG전자는 미디어, 파트너사 관계자 등 1000여 명을 현장에 초청한 가운데, 집 안에서부터 모빌리티, 상업용 공간 등 다양한 장소에서 제품과 솔루션들이 서로 연결돼 고객을 중심으로 맞춰지고, 일상을 조화롭게 조율하는 ‘공감지



LG전자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현지시간 1월 5일 진행하는 ‘LG 윌드 프리미어’의 초청장. /LG전자

능’의 진화 모습을 소개할 계획이다. 류재철 LG전자 CEO가 대표 연사로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LG이노텍은 자율주행·전기차 등 미래 모빌리티 혁신 솔루션을 선보인다. LG이노텍은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웨스트홀 초입에 미래 모빌리티 단독 테마로 전시 부스를 마련하고, 관련 제품 35종을 소개한다.

LG이노텍은 자율주행차와 전기차(EV) 등 미래 모빌리티를 대표하는 두 개의 테마를 앞세워, 각 목업(Mockup)에 핵심 융·복합 솔루션을 탑재해 공개한다.

자율주행 컨셉카 목업에는 센싱·통신·조명 등 차량 내외부를 아우르는 AD(자율주행)·ADAS(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용 부품 20종이 탑재됐다.

특히 완성차 고객의 숨은 니즈를 적극 반영하여 개발한 차량 내부용 인캐빈 센싱 솔루션 제품군은 목업의 하이라이트다.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신제품 ‘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모듈’이 대표적이다. 이번 아니라 LG이노텍은 이동감

지(CPD) 기능이 장착된 ‘차세대 디지털 키 솔루션’ 처럼, 다양한 기술을 하나의 제품에 담아 차별적 고객가치를 제공하는 융·복합 제품에도 무게를 싣는다.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외부용 센싱 제품도 선보인다. LG이노텍이 자체 개발한 AX(AI 전환) 기반 소프트웨어를 통해 렌즈 세정 기능을 한층 고도화한 ‘액티브 클리닝 카메라 모듈’, 주파수 변조 연속파(FMCW), 라이다(LiDAR), 레이더(Radar)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전기차 목업에는 ‘무선 BMS(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BJB(배터리 정선박스) 기능을 하나로 결합한 ‘B-Link’ 등 자체 보유한 핵심 파워·모터 제품 15종을 망라했다.

문혁수 LG이노텍 대표는 “CES 2026을 미래 모빌리티 선도 기업 입지를 한층 확고히 하는 계기로 만들 것”이라며 “차별적 고객가치를 제공하는 혁신 제품 및 기술을 지속 선보이며, 고객의 비전을 함께 실현하는 신뢰받는 기술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업계, 경쟁력·투자 한계 우려 주52시간 면제·직접지원 절실

## 반도체특별법 처리 초읽기

美·日·대만·中 노동시간 규제 제외  
글로벌 경쟁력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르면 이달 9일 진행되는 본회의를 통해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이번에도 ‘직접 지원·주52시간 면제’ 안이 제외될 수 있어 반도체 업계의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특별법이 이달 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도체특별법 합의를 위해 산자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오는 9일 진행되는 본회의를 통해 연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도체 업계는 일단 반기고 있지만 52시간제 면제안이 제외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쟁력 확보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 반도체 강국인 미국과 일본, 대만은 반도체 연구인력에 대해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은 ‘996’을 기본으로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하이트킬라 이그잰션(면제)’ 제도를 통해 연봉 10만달러(1억4500만원) 이상, 하이트킬라(관리직·전문직) 직종에 새벽 및 주 7일 근무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인 대만 TSMC는 R&D 센터를 연중 휴무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도 2018년 고소득 전문직에 한

해 노동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뜻을 담은 ‘996’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또 정부의 직접 지원없이 기업의 자체 투자는 한계가 있다. 언제 고갈될지 모르는 투자 체력은 분명 한계를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2022년 제정한 반도체법에 따라 5년간 첨단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 확장에 390억 달러(약 57조원)의 보조금, R&D에 110억 달러(약 16조원), 25%의 세액공제를 지원한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에 따라 총 3400억 위안(약 70조원)을 자국 반도체 생태계 육성에 지원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70조원이 넘는 금액을 반도체에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자국 반도체 파운드리 연합 라피더스에 2조 9000억 엔(약 27조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했다. 대만 TSMC의 최대주주는 대만 국가발전위원회(NDC)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산업 지원책으로 정부의 직접 지원보다 세액공제 등 간접 지원에 그치고 있다. 결국 기업이 투자 자원 문제 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AI산업의 급성장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이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인재와 자본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현대차, 수소연료전지로 탄소중립 달성 박차

친환경 선박·수소전기 트랙터 등  
최적화 수소연료전지 기술 개발

현대자동차가 수소전기 승용·상용차를 넘어 더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할 수 있는 수소연료전지 개발에 나선다. 친환경 선박·수소전기 트랙터 등 미래 모빌리티에 최적화된 수소연료전지 기술로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과 수소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기 위함이다.

현대차는 지난 2일 서울시 여의도 소재 콘래드 호텔에서 HD한국조선해양, 부산대와 함께 ‘선박용 수소연료전지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현대차와 HD한국조선해양, 부산대학교 수소선박기술센터는 수소전기차(FCEV) ‘디올 뉴네쑈’, 수소전기버스 ‘일렉시티 FCEV’ 등을 통해 검증된 현대차 연료전지 기술을 근간으로 선박용 수소연료전지와 수소혼소디젤 엔진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시스템을 개발하고, 해당 시스템을 액화수소운반선 등 친환경 선박의 동력원으로 상업화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현대차는 기존 보유한 연료전지 기술을 선박용으로 최적화한 수소연료전지를 공급할 계획이며 HD한국조선해양은 수소 혼소 디젤 엔진과 현

대차가 개발한 수소연료전지로 구성된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시스템 통합 설계를, 부산대는 HD한국조선해양이 설계한 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실증을 각각 담당한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선박에 대한 배출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협력은 차세대 친환경 선박 시장 선점을 위한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현대차는 친환경 물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증 사업에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해 자체 개발한 수소전기 트랙터도 공급한다. 국내에서 민관이 협력해 실제 화물운송 노선에 수소전기 트랙터를 투입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번 실증 사업에 투입되는 수소전기 트랙터는 국내 운행환경 및 법규에 맞춰 신규 개발된 모델로, 2개의 수소연료전지로 구성된 188kW급 수소연료전지 시스템과 최대출력 350kW 구동모터를 탑재했으며 수소탱크 용량은 68kg(700bar)으로 1회 충전 시 약 760km를 주행할 수 있다.

실증 과정에서 현대차는 수소전기 트랙터 개발 및 제공을 울산시는 실증 사업 총괄 및 운영비 지원을, 현대글로벌을 비롯한 3개 물류사는 차량 운행 및 운행 데이터 제공을 각각 담당한다.

/양성운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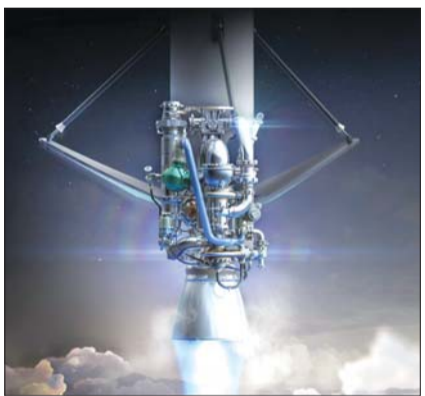
## 대한항공-현대로템, 35톤급 메탄 기반 엔진개발 착수

2030년까지 490억 규모 과제 추진  
터보펌프, 엔진, 연소기 분야별 협력

대한항공과 현대로템이 재사용 우주발사체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35톤급 메탄 기반 엔진 개발에 공식 착수했다. 두 기업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가 관리하는 ‘지상기반 재사용 우주발사체용 메탄엔진 기술 개발’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됐으며, 2030년 10월까지 총 490억원 규모의 개발 과제를 추진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대전 KW컨벤션에서 열린 착수회의에서 국기연, 방위사업청, 육군, 국방과학연구소, 우주항공청 등 관계 기관 및 참여 기업들과 함께 향후 일정과 세부 개발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가 미래 우주발사체 시장에서 독자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사업으로 평가된다.

이번 개발의 핵심인 메탄 엔진은 기존 케로신(등유) 엔진과 비교해 연소 효율이 높고 연소 후 잔여물이 적어 재사용성이 뛰어나다. 저장 안정성이 우수하고 구조적으로도 관리가 용이해 차세대 발사체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국 스페이스X의 랩터 엔진과 블



재사용 우주발사체용 메탄엔진 조감도. /현대로템

루오리진의 BE-4 등 글로벌 기업들이 모두 메탄 엔진 기술에 집중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대한항공은 엔진의 ‘심장’으로 불리는 터보펌프 개발을 맡는다. 터보펌프는 극저온의 액체 메탄과 산화제를 고압·고속으로 압축해 연소기로 공급하는 핵심 장치로, 엔진의 성능과 신뢰성을 좌우한다. 영하 180도의 극저온과 수백도의 고온 가스를 동시에 견뎌야 하며 분당 수만 회 회전하는 고난도 기술이 요구된다.

현대로템은 엔진 설계와 연소기 개발을 담당한다. 현대로템은 지난 1994년부터 메탄 엔진 연구를 시작해 2006년

국내 최초로 메탄 엔진 연소 시험에 성공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과제를 통해 재사용 발사체용 메탄 엔진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K-우주산업의 기술 자립을 가속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메탄 엔진 개발이 국내 발사체 기술의 자립과 재사용 로켓 시대 대비에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엔진·연소기·터보펌프 등 세부 분야별 전문가 협력의 통해 국내 우주산업의 기술 역량이 한층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기연 손재홍 소장은 “이번 사업은 대한민국이 미래 우주안보와 우주기술 전략분야에 본격 진입했다는 의미를 가진다”며 “과제의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첨단 K-우주산업의 비상을 위한 첫 단초가 될 이번 과제의 성공을 위해 30년 이상 축적해온 메탄엔진 분야 노하우를 기반으로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연구개발 전문인력을 꾸준히 육성하고 관계 기관들과 협력해 재사용 우주발사체용 메탄엔진 상용화의 길을 닦고 국내 우주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증진에 일조하겠다”고 전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 정부, 4개 부처 연합해 ‘국방 AI 대전환’ 본격 시동

중기부·과기정통부·국방부·산업부  
국방 AX 확산위해 부처간 협력  
국방 AI 수요 발굴·실증 등 지원  
AI 기술개발·인재양성·산업적용

정부가 국방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는 ‘국방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부처간 협력을 본격화한다. 현재 추진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국가대표 AI)’을 기반으로 국방과 산업 전반의 AI 전환(AX)을 가속화하고, AI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국방 분야에도 진입 시켜 성장시키고 상생협력 기반을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3일 서울 용산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국방부, 산업통상부와 ‘국방 AI 생태계 발전포럼’을 계기로 국방·산업 분야의 AX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글로벌 안보환경 변화와 함께 AI 기반 지능형 지휘통제, 무인·자율체계, 국방운영 자동화 등 국방 분야 전반



(왼쪽부터)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2025 국방 AI 생태계 발전 포럼’에서 국방AX 확산을 위한 다부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의 AI 적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제조·산업 인공지능 전환(AX)의 핵심 부처인 과기정통부, 중기부, 산업부의 전문성과 역량을 융합하고 연계성 있는 정책으로 국방·산업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자리를 마련했다.

업무 협력 내용에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의 국방·산업 등 전반

의 AX 혁신 ▲국방 AI기술 수요 발굴, 실증 기회 제공 ▲국방 R&D인프라 활용 지원 ▲AI 핵심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국방·산업·공공 분야 활용 ▲AI 인재양성 ▲방산·제조분야 AI기술 국방 분야 적용 확대 ▲국방 AX 분야 혁신 스타트업·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 등이 두루 포함돼 있다.

이번 협약으로 4개 부처는 AX 핵심

기술 확보부터 국방분야 실증, 산업 적용,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중소기업 확산까지 이어지는 부처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이를 통해 국방·산업 분야 AX를 가속화해 방위산업 경쟁력을 지속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이라는 목표에 한층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최근 스마트팩토리, 에너지 수요 예측, 스마트 그리드 등 전 산업이 빠르게 AI 기반 구조로 전환되는 가운데, 산업 전반의 AX는 기업 경쟁력 및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 전반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방과 산업 전반에 AX를 확산하는 것은 국가 안보 역량을 강화할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AI 기반 서비스를 보다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국가 AI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방 분야 AI 전환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대한

민국의 국방력을 좌우하는 게임 체인저”라며 “국방부는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군이 ‘스마트 첨단강군’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AI 등 첨단 기술이 안보와 경제를 좌우하는 시대, 국방 AX 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라며 “산업부는 AI, 제조, 국방의 강력한 삼각축을 기반으로 M.AX(Manufacturing AX)와 연계해 AI 중심의 민군겸용 기술개발 수요를 발굴하고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민간에 더해 국방 부문에서도 AI 적용이 가속화되며, 세계적으로 AX 스타트업이 국방의 중요 주체로 급부상했다”며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스타트업의 국방 분야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국방 AX 수요와 스타트업 AX 역량을 결합함으로써 민간·국방 양 축에서 활약할 수 있는 AX 혁신 스타트업들을 육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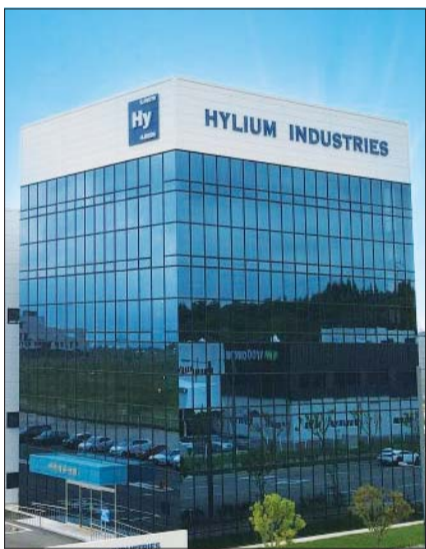
## 하이리움산업, 액화수소·수전해 융합으로 글로벌 공략

中 귀푸칭닝, 하이리움에 100억대 투자  
액화수소 생산·저장·유통 기술 제공  
월드 하이드로젠 엑스포서 장비 공개

국내 수소산업을 리드하는 하이리움산업이 중국의 대표적인 수전해·수소장비 기업 귀푸칭닝(Jiangsu Guofu Hydrogen Energy Equipment Co., Ltd)과 ‘수소 동맹’을 맺고 글로벌 수소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 귀푸칭닝은 중국내 수소충전소 장비 시장에서 5년 연속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다.

특히 한국과 중국에서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제3세계 시장까지 진출하는 등 글로벌 확장 전략을 함께 펼친다. 하이리움산업은 향후 중국에 액화수소 탱크 제조 등을 위한 생산공장을 추진한다.

3일 하이리움산업에 따르면 두 회사



하이리움산업의 경기 평택 공장 전경.

간 연합은 액화수소와 수전해라는 서로 다른 분야의 기술이 결합해 새로운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이리움산업은 액화수소 생산·저

장·유통 기술 전반과 액화수소드론의 파워팩 기술을 제공하고, 귀푸칭닝은 수전해 설비와 장비 공급, 그린수소 생산, 액화수소 드론의 중국 내 보급 등을 담당한다.

이에 앞서 귀푸칭닝은 지난 10월 약 100억원이 넘는 돈을 하이리움산업에 투자했다. 향후 양측은 조인트벤처(JV) 설립도 계획하고 있다. 귀푸칭닝은 하이리움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액화수소 관련 원천 기술력을 보고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수소 시장에서 세계 1위를 노리는 중국의 핵심 기업이 한국의 차세대 수소 전문기업과 손잡은 것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의 수소 생산능력은 전년 대비 1.6% 가량 증가한 연간 5000만t

을 넘어섰다. 지난해 생산량은 3650만t으로 집계됐다.

하이리움산업은 국내에선 최초로 액화수소 생산과 저장 기술을 국산화했다. 축적된 극저온 기술과 100여 건의 특허를 기반으로 액화수소 저장탱크, 극저온 운송장비, 액화수소 충전 설비, 그리고 6시간 이상 장기 체공이 가능한 액화수소 드론 파워팩 등 미래 수소 활용 분야에서 독보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 SK가스, 포스코,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자산운용, 한화투자증권 등이 전략적투자자(SI),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엔 삼성중공업이 삼성벤처투자를 통해 하이리움산업에 2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호 기자

## 청호나이스

### ‘홈케어 총국’ 본격 출범

서비스 품질 고도화로 경쟁력 제고

청호나이스가 차별화한 홈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전문 조직을 본격적으로 꾸렸다. 청호나이스는 경기 화성 청호인재개발원에서 ‘홈케어 총국’ 발대식을 개최하고 홈케어 서비스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문 조직을 공식 출범했다고 3일 밝혔다.

‘홈케어 총국’은 프리미엄 홈케어 서비스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 교육을 이수한 서비스 인력을 기반으로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 고도화를 통해 보다 차별화된 홈케어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청호나이스는 이번 조직 신설을 통해 전사적으로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동시에 중장기적 성장 기반을 확보하며 미래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승호 기자

## 중기부, 내년 예산 16.5조… 기술혁신·유니콘 육성 본격화

중企 R&D 내년 2.2조로 대폭 확대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5790억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에 역대 최대인 16조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 연구개발(R&D)과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에도 힘쓴다.

벤처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3200억원 늘어난 8200억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이는 당초 정부 예산안 1조1000억원보다는 다소 줄었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는 16조5233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인 15조

2488억원보다 1조2745억원(8.4%) 늘어난 것으로, 중기부 본예산이 16조원을 넘긴 것은 처음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중소기업 R&D 투자 확대다. 국가 R&D 예산은 2023년 6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카르텔’ 발언 이후 대폭 축소됐다.

자연스레 중소기업 R&D 예산도 직격탄을 맞았다. 2023년 1조7701억원이었던 예산은 이듬해 1조3932억원으로 3769억원이나 감액됐다. 작년 1조5170억원으로 일부 회복됐지만 예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내년도 중소기업 R&D 예산은 2조1959억원으로 결정됐다. 중기부는 이를 ‘돈이 되는 R&D’에 집중 투자해 중소기업

업의 기술혁신과 기술 주도형 성장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디지털·AI 기반 제조혁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중소·중견 제조업의 AI 전환에도 힘을 쏟는다.

내년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에는 올해보다 1660억원 늘어난 4021억원이 사용된다. 해당 사업 예산은 2023년 1670억9100만원에 불과했지만 2024년(2190억5400만원)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보다 늘어난 모태펀드 예산으로는 AI·딥테크 유망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와 지역과 회수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유니콘 브릿지는 내년 첫 선을 보인다.

혁신성이 검증된 테크 기업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화자금, 기술 고도화, 해외법인 설립 등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중기부는 신규 확보한 320억원으로 50여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사업에는 5790억원이 투입된다. 국민의힘 주도로 전액 삭감이 추진됐지만 소상공인계의 강한 반대와 여야 합의에 따라 원안이 유지됐다.

한성숙 장관은 “소상공인의 빠른 회복과 혁신 성장, 중소·벤처·스타트업의 미래 도약을 위한 정책 지원들이 촘촘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연내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를 빠르게 추진하는 동시에 내년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고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김승호 기자



AI·Cloud·연계 플랫폼 초월 기업 메타빌드

# AI LLaMON Platforms

상용/SaaS 하이브리드형

AI 연계미들웨어·디지털트윈관제플랫폼 시장점유율 1등 기업

## AI통합플랫폼 (LLaMON)

LLM·RAG·MLOps, Agent

LLM/sLLM 모델 및 튜닝

RAG 파이프라인도구

멀티 AI에이전트도구(MCP/A2A)

Document/민원상담 AI

## 디지털휴먼플랫폼 (Kelver One)

### 연계미들웨어 (MESIM)

시장점유율 1위  
[SaaS or On-Premise]

APIG/ESB/망/SAP연계

AI 연계/장애 어시스턴트

DATAHUB

### 디지털트윈관제플랫폼 (Kelver Twin)

교통·도시·산단·건설

자율차·철도 항공·드론

레이더·AI영상검지



# 모바일 체험➡PC 결제 게임사, 수익 구조 재편

게임업체가 수익 구조 재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업계에선 ‘모바일에서 모으고 콘솔·PC에서 번다’는 크로스 플랫폼 전략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모바일 시장은 접근성과 유지 확보 효율이 뛰어나고, 콘솔·PC는 결제 단가가 모바일 대비 5~6배 높아 장기 매출을 창출하기 좋다는 분석이다.

3일 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글로벌 모바일 게임시장은 연 820억 달러 규모로, 전 세계 게임 플랫폼 중 가장 큰 이용자 기반을 형성한다. 모바일은 기기 보급률이 높고 설치 허들이 낮아 신규 이용자 확보 비용(CPI)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 때문에 게임사들은 모바일을 신작 알림과 초기 체험 플랫폼으로 삼아 대규모 유저풀을 확보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모바일 통해 신작 흥행기반 구축  
콘솔·PC 중심 프리미엄 매출 ▲

국내외 대형사 플랫폼 전략 가속  
시장변화 속 장기 수익모델 모색

반면 콘솔·PC 플랫폼은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은 높지만 이용자의 결제 단가는 모바일 대비 훨씬 높다. 패키지 매출, 시즌패스, 확장팩 등 프리미엄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이 자리 잡아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모바일은 유입 채널, 콘솔·PC는 수익 채널”이라는 분석이 일반론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 주요 게임사의 매출 구조를 보면 콘솔·PC 비중이 모바일 대비 현저히 높은 경향이 나타난다.

이 같은 흐름은 글로벌 흥행작과 대형사의 개발 전략에서도 확인된다. 에픽게임즈 포트나이트, 블리자드 디아블로 시리즈, 텐센트 계열의 서브컬처·액션 RPG 등은 초기부터 모바일·PC·콘솔을 아우르는 크로스 플랫폼을 전제로 개발됐다. 모바일에서 게임을 체험한 이용자가 자연스럽게 PC·콘솔로 이동하면 그래픽·조작·유희화 모델이 고도화되면서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난다.



글로벌 게임전시회 ‘지스타 2025’가 개막한 13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관람객들이 신작 게임을 즐기고 있다. /뉴스시스

국내 게임사들도 플랫폼 전략을 재편하고 있다. 넥슨은 퍼스트 디센던트·프라시아전기 등 신작을 글로벌 크로스 플랫폼 중심으로 운용하며 콘솔 비중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T·L 이후 콘솔 신작 프로젝트를 본격화했고, 크래프톤은 하드코어·캐주얼 장르를 결합한 글로벌 멀티 플랫폼 신작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넷마블 또한 신작 IP 다수를 콘솔·PC 동시 개발로 전환하며 수익 구조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전략이 단기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라고 분석한다. 모바일 시장은 성장률이 둔화됐지만 콘솔·PC는 프리미엄화 흐름이 강화되고 있어 수익성이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유통 환경이 변화하면서 단일 플랫폼 중심 사업은 리스크가 커졌고, 크로스 플랫폼이 사실상 필수 조건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모바일은 유저 유입 효율이 가장 좋고, 콘솔과 PC는 결제 단가가 높아 장기 매출 창출에 유리하다”며 “앞으로는 모바일·콘솔·PC를 묶는 크로스 플랫폼 전략이 신작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기자 vitna@metroseoul.co.kr

## 위성통신 ‘스타링크’ 오늘부터 서비스

국내서 월 8만원대에 제공  
월 8.7만원에 무제한 데이터

미국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를 이제 한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스타링크는 가정용 위성 통신 요금제를 국내에서 월 8만원대에 제공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오는 4일부터 국내에서도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를 제공할 예정이다.

스타링크는 이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정용 위성통신 요금제 상품을 선공개했다. 월 8만7000원에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가정용 서비스의 다운로

드 속도는 135Mbps, 업로드 속도는 40Mbps다.

다만, 스타링크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55만원의 서비스 구동용 스탠다드 키트(안테나)를 설치해야 한다. 스탠다드 키트는 키스탠드, 공유기, 스타링크케이블, AC 케이블, 전원 공급 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 첫 이용자에게 30일 무료 체험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가정용과 별개로 기업용 위성통신 요금제 상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공식 계약을 맺은 SK텔링크, KT 셋(SAT) 등이 스타링크 요금제 상품을 공급하게 된다.

/김서현 기자

# LG U+, 양자내성암호 전환기술 공모전 성료

총 9개팀 다양한 연구결과 제출  
국민대학교 ‘HSM’ 팀 대상 차지

LG유플러스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정보보호학회, 크립토크랩, 양자산업생태계지원센터(KQIC)와 함께 개최한 ‘양자내성암호 전환 기술 공모전’을 마치고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다가오는 양자컴퓨터 시대에 대비해 양자내성암호(PQC) 기술의 혁신적 적용 방안을 발굴하고 우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9개 팀이 참가해 실용성과 확장성을 갖춘 다양한 연구 결과를 제출했다.

대상은 국민대학교 ‘HSM(하드웨어 시큐리티 마스터)’ 팀이 차지했다. 이들은 제한된 메모리·처리 환경의 임베디드 시스템에서 수학적 최적화 기법을 활용해 PQC 알고리즘 성능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선보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단은 “자원 제약 환경에서 PQC 알고리즘을 최적화한 기술이 인상적이



시상식에서 공모전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유플러스

며 실제 구현에도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최우수상은 한성대학교 ‘이음’ 팀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UGRP’ 팀이 공동 수상했다. 우수상에는 한성대학교 ‘김김윤윤모’ 팀과 부경대학교 ‘웨하스’ 팀이 선정됐다.

수상팀들은 무중단·무지연 TLS, 비트 연산 최적화를 통한 HQC 가속, MCP 인증의 PQC 적용, 임베디드 환경용 경량ML-KEM 설계 등 다양한 산업 응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공모전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평

가로 진행됐으며, 기술 완성도·보안성·확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참가자들은 ‘PQC 마이그레이션 플랫폼(pqcmp.kr)’을 활용해 알고리즘 검증과 성능 테스트를 수행하며 실무 중심의 경험도 쌓았다.

LG유플러스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국내 PQC 기술 저변을 확대하고 차세대 보안 인재 양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PQC를 실제 통신·서비스 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산학 협력을 늘리고 관련 세미나도 정례화할 방침이다.

/김서현 기자 seoh@

## 애플, 韓 게임시장에 베팅… 국내 게임사와 협업 확대

성수동서 국내 첫 게임 쇼케이스  
아이폰17 프로, AAA급 게임 구동

애플은 지난 2일 서울 성수동에서 국내 첫 게임 쇼케이스를 열고 아이폰·아이패드·맥 전반의 게이밍 성능과 생태계를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행사에는 넷마블·데브시스터즈·컴투스·크래프톤·엔씨소프트 등 국내 주요 게임사 5곳이 참여해 신작과 미출시 타이틀을 직접 시연했다.

이번 쇼케이스는 애플이 한국 게임 시장을 전략 지역으로 규정하고 개발사와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현장에서는 넷마블의 ‘세븐나이츠 리버스’, 데브시스터즈의 ‘쿠키런: 오브스매시’, 엔씨소프트의

‘아이온2’, 크래프톤의 신작 ‘인조이’, 컴투스의 미출시 타이틀 ‘도원암귀 크립슨 인페르노(Crimson Inferno)’ 등 5개사의 작품이 아이폰17 프로·아이패드 프로·맥 기반으로 시연에 올랐다.

행사의 중심은 아이폰17 프로의 성능이었다. 이 기기는 애플의 최신 칩셋인 A19 프로와 아이폰 최초의 베이퍼 챔버를 탑재해 이전 세대 대비 지속 성능을 약 40% 끌어올린 모델이다. 애플은 이 성능을 기반으로 AAA급 블록버스터 게임까지 안정적으로 구동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시연하며 모바일 기기 한계를 다시 확장하는 기술력을 강조했다.

애플은 한국 개발사와의 협업 확대의 지도 명확히 드러냈다. 회사 측은 “한국 개발사와 함께 애플 생태계 기반의 몰입

형 게임 환경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이번 쇼케이스가 단순한 제품 소개가 아니라, 한국 게임사와 장기 파트너십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애플이 특정 국가에서 단독으로 게임 쇼케이스를 마련한 사례는 드물며, 특히 국내 대형 개발사 5곳이 동시에 참여해 신작을 시연한 점에서 한국 시장에 대한 무게감이 한층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애플이 한국 게임사의 신작을 직접 시연 무대에 올리며 생태계 연계를 강화하는 전략을 분명히 했다”며 “이번 행사가 애플 기기 기반 게임 시장 확장에 새로운 변곡점이 된다”고 말했다.

/최빛나기자

## 전직원 AI역량 강화 프로그램 본격 가동

과기정통부 최신기술·도향 공유  
AI 전문가 미팅·인턴제 등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전담 부처로서 직원들의 AI 이해도와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국내외 최신 AI 기술과 시장 동향을 공유하는 ‘AI 전문가 브라운백 미팅’을 매월 개최한다. 12월 3일 열리는 첫 번째 행사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 정승 AI대학원장이 ‘AI 기술 발전의 흐름과 전망’을 주제로 강연한다.

둘째, 글로벌 AI 이슈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정책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개방형 정보 공유 플랫폼인 ‘AI 트렌드 센싱 플랫폼’을 이달부터 운영한다.

이 플랫폼은 국내외 AI 동향, 연구기관 및 주요 기업 분석 보고서, 전문가의

견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집단 지성을 활용해 핵심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대응 방안을 도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셋째, 현장 중심의 학습을 위한 ‘AI 현장 일일 인턴제’를 도입한다. 직원들이 AI 학습데이터 구축, 모델 개발 및 활용 과정을 실제 기업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도록 해, 정책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책을 더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부처 내 업무혁신을 이끄는 ‘AI 이노베이터스’를 중심으로 ‘범정부 AI 공통기반’과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을 활용해 보도자료 작성, 보고서 요약 등 AI 활용 행정혁신 사례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업무 방식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공공 AI 시스템에 필요한 기능 개선 수요도 발굴한다.

/김서현 기자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 드림 온 페스타 인 부산 아동센터 60여명 참여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지난 달 29일 부산 이스포츠킥경기장 옐로 스페이스에서 창·창작 페스티벌 ‘드림 온 페스타 인 부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공동 주관으로 참여한 이 행사에서 부산 지역아동센터 8개소 아동, 청소년과 교사 등 60여명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게임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자기표현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미래 진로 특강 ▲창작 워크숍 ▲작품 공유회 ▲시상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스마일게이트 창업재단 오렌지플래닛 동문사 톤스퀘어 이호영 대표는 ‘인공지능 시대,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의 새로운 창작방법’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 3차 상법 개정안 기대에 지주사 급등… 국민연금도 매수 확대

배당세 개편 겹치며 주주가치 부각  
한화·HD현대 등 지주사 주가 강세  
국민연금, 삼성물산 등 지분 확대  
주주환원 압박·경영권 부담도 커져

주요 그룹 지주회사들의 주주들은 요즘 절로 웃음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소각하도록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연내 처리 의지를 밝히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어서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도 지배구조 개선 및 정책수혜가 예상되는 지주사 주식 비중을 늘리고 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화그룹 지주사 (주)한화는 올해 들어 주가가 203.35% 올랐다. 대한항공 지주사인 한진칼은 44.43% 뛰었다. HD현대는 153.16%, (주)SK는 103.04%, 롯데지주는 27.75% 각각 상승했다.

그간 지주사는 그룹의 최상위 지배 회사라는 특성상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높아 대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시장 평가를 받아왔다. 이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도 저평가되는 경우가

〈주요 지주회사 주주 환원 정책 정리〉

기업명	적용 기간	주주 환원 정책	그 외 자본 정책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공시 여부
CJ	2023~2025년	1. 별도(조정) 순이익의 70%를 배당 2. 매년 주당배당금(DPS)을 유지 또는 상향	-	X
LG	2024~2026년	1. 별도(조정) 순이익의 60%를 배당	‘27년 Target ROE8~10%	24년 11월
SK	2024~2026년	1. 시가총액 1~2%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 또는 추가 배당 2. 최소 주당배당금(DPS) 5,000원 보장	1. Target ROE ‘26년 8%, ‘27년 10% 2. Target PBR 1배	24년 10월
한화	-	없음	-	X

많았다. 하지만 1, 2차 상법 개정안에 이어 3차 상법 개정안까지 국회 통과를 앞두면서 이 같은 상황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이 지주사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도 호재다. 여야는 지난달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하기로 했다.

증권가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최관순 SK증권 연구원은 “3차 상법 개정이 이뤄져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가 일괄 소각된다면 자사주 악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의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계기가돼 지주사재평가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김한이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지주 업종은 저평가돼 왔고 주주가치 제고가 재평가의 근간이 된 업종”이라며 “3차 상법 개정안 논의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은 해당 업종의 호조 지속 기대를 높인다”고 진단했다. 특히 “내년은 기대가 본격

적으로 실현되는 해가 될 전망”이라며 “사업 포트폴리오상 순자산가치(NAV) 증대가 나타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꾸준한 관심을 가지길 추천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도 지주사를 사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OCI홀딩스 지분을 8.49%에서 10.57%로 2.08%포인트(p) 늘렸고 효성(1.04%p), 동아쏘시오홀딩스(1.01%p), 삼성물산(1%p), 두산(1%p) 등 지주회사 및 관련 종목에서 비중을 확대했다.

해당 기업들도 겹으로는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있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급등한 주가에 걸맞은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놔야 한다는 ‘청구서’가 속속 날아들고 있어서다. 현금을 써서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거나 배당을 늘려야 할 수 있다. 해외 사모펀드 등 외부의 경영권 공격 여지를 더 키워 방어비용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지주사 주가가 올라 오너 일가의 승계 비용이 커지는 것도 부담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의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한다. 이전 보유 자사주에는 6개월 추가 유예기간을 주지만 소각 의무는 마찬가지다. 임직원 보상 등을 위해 지금까지 이사회 결의로 자사주를 살 수 있던 것도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해 교환 등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 했다. ‘주주 이익 환원’이란 목적에 부합하게 자사주 관련 법을 고쳐야 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BDC 운용 유연성 ↑… 공시의무로 투자자 보호

비상장·혁신기업 투자 넓히는 제도 개편  
운용규제 완화로 유연성 높여 투자 활성화  
시당·공시 의무 강화해 투자자 보호

자산운용사가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운용할 때 각종 규제 예외 적용을 받아 운용상 유연성이 커진다. 동시에 운용사가 BDC 운용 시 부담해야 할 시당 투자(운용사가 일부 초기 자금을 대는 것) 규모와 공시 의무 등이 명시돼 투자자 보호 책임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의 입법·규정변경예고를 다음 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BDC는 개인 투자자가 주식 시장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공모펀드다.

개정안에 따르면 BDC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투자를 완료한 벤처조합

및 코넥스·코스닥 상장사(이하 주투자대상기업)에 자산총액 6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벤처조합 및 코스닥 상장사에 투자할 때 특정 분야로 투자가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투자비율 60%를 계산 시 각각 30%까지만 인정된다. 가령 100만원 중 코스닥 상장사에 40만원, 일반 벤처기업에 20만원을 투자했다면 코스닥 상장사 투자분은 30만원까지만 인정돼 주투자대상기업에 총 50만원 투자했다고 인정된다.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방법은 증권 매입 또는 금전 대여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증권 매입 때는 모험자본 공급 취지에 맞게 주식, 주식연계채권(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채) 매입으로 한정한다. 금전 대여는 신용위험 관리를 위해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전체 투자금액의 40% 한도로 제한한다.

BDC는 주투자대상기업에 최소 60%를 투자하되 나머지 10% 이상은 국공채 및 예·적금 등 안전자산에, 최대 30%까지

는 재량껏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BDC의 자산총액 10%를 초과해 동일 주투자대상기업에 동일 방식으로 투자할 수 없도록 했다.

운용 시 일부 예외적 규제 적용으로 유연성을 강화한다.

일반 공모펀드는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용규제 비율을 위반하면 기본 3개월간 규제 적용이 유예되지만, BDC는 기본 1년간 유예된다. 유동성이 낮은 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점이 고려됐다.

BDC는 1년 안에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최소투자비율(60%)을 충족해야 하지만 시장 상황 등으로 추가 투자가 투자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투자심의위원회가 판단하면 1년간 규제 적용 유예를 받는다. 비상장주식 등 가격 상승으로 자산 처분이 투자자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상황이면 투자심의위원회 판단 아래 2년간 규제 적용 유예도 가능하다.

/신하은 기자



하나증권이 개최한 기업대항 테니스리그 ‘하나증권 라이벌스 컵’에 참가한 IT·인터넷 부문 예선 그룹 참가 선수들이 경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하나증권

## 하나證, 기업 스포츠 리그 ‘라이벌스컵’ 첫발

24개 기업 참여해 두 달간 진행

교류·상생 취지… 경기영상 공개

하나증권은 경기도 화성 테니스오피어에서 기업 대항 테니스 리그 ‘하나증권 2025 라이벌스컵’을 개막했다고 3일 밝혔다. 하나증권이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총 8개 산업군의 24개 기업이 참여한다. 경기는 내년 2월 1일 결승전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되며, 각 기업의 임직원들이 팀을 이뤄 경쟁을 펼친다. 주요 현장 콘텐츠를 이틀 경쟁을 펼친다. 주요 현장 콘텐츠와 결과 등은 하나증권 공식 유튜브 채널 ‘하나TV’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라이벌스컵은 시장에서의 경쟁을 스

포츠로 확장한 기업 대항전으로, 전자·반도체 산업의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 IT·인터넷, 모빌리티, 금융, 유통, 스포츠 등 다양한 업종의 국내 주요 기업들이 대거 참여한다. 단순한 경쟁을 넘어 기업 간 상생과 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긍정적 효과까지 기대되는 행사다.

김상면 하나증권 ESG본부장은 “국내 주요 기업들이 업계 경쟁을 스포츠로 확장해 공정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경쟁하는 새로운 무대가 열렸다”며 “하나증권은 앞으로도 국내 테니스 문화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증시 활황에 증권사 3분기 순이익 2.5조

수탁·수수료 증가에 영업실적 개선  
금리 상승 여파로 채권 손익은 부진

올해 3분기 증권사들이 순이익 2조 50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증시의 훈풍이 지속되면서 수수료 이익이 확대된 영향이다.

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3분기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증권사 60개사의 3분기 순이익은 2조 492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1조 8109억원) 대비 37.6%(6814억원) 증

가한 수준이다. 반면, 직전 분기(2조 8502억원)보다는 12.6%(3579억원) 감소했다.

증시 활성화로 인해 수수료 수익은 4조 3945억원을 기록해 전 분기 3조 8507억원보다 14.1% 증가했다. 이 가운데 수탁 수수료는 2조 2775억원으로 주식거래 대금 증가에 따라 전 분기 대비 19.6% 늘었다. 기업금융(IB) 부문 수수료는 1조 154억원으로 전 분기(1조 809억원)와 유사했다.

증권사의 자기매매손익은 3조 5033억원으로 전 분기(3조 2444억원) 대비 8.

0%(2588억원), 전년 동기(2조 8975억원)보다는 20.9%(6058억원) 늘었다

다만 채권 부문에서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채권부문 손익은 2조 3754억원을 기록, 전분기(3조 30억원) 대비 6276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연준·Fed)의 금리 인상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국내 국고채 금리도 동반 상승한 영향이다. 채권 보유 규모가 큰 대형사의 채권 관련 손익 감소 규모(-5018억원)가 중소형사(-1255억원)보다 크게 나타났다.

9월 말 기준 증권사의 자산총액은 6월 말 대비 6.6% 증가한 908조 1000억원을 기록했다.

/신하은 기자

## KB증권, 인도 공략위해 뭄바이 사무소 열어

M&A·지분투자 전초기지 역할 기대

KB증권은 인도 금융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해 뭄바이에 사무소를 오픈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1일 진행된 뭄바이 사무소 개소식에는 유동완 주뭄바이 대한민

국 총영사, 로히트 쿠마(Rohit Kuma) 인도 증권거래소(NSE)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사무소는 뭄바이 남부의 전통적인 상업 중심지인 나리만 포인트(Nariman Point) 지구와 금융 중심지인 BKC(B

andra Kurla Complex)의 중간 지역에 위치해 있어 본격적인 인도 금융시장 투자 기회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KB증권은 설명했다.

김성현 KB증권 대표이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KB증권은 인도 금융시장의 중심인 뭄바이에 거점을 마련해 현지 M&A(인수합병), 지분투자 등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 대기업 92곳 내부거래 232조 국외계열사 496조 두배 넘어

## 공정위, 2024 내부거래 현황

공시집단 내부거래 비중 12.3%  
대방건설 33%, 중앙 28%로 높아  
총수 지분율과 내부거래비중 비례

지난해 대기업들의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가 국내계열사 대비 두 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수일가 지분이 많을수록 상표권 사용료 수입도 커, 대기업집단 내부거래가 총수일가 중심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92개)의 2024년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수 있는 집단의 국내계열사 내부거래(232조원) 비중은 11.8%였던 반면 국외계열사와의 내부거래(496조원) 비중은 25.3%로 집계됐다.

전체 공시집단의 국내 내부거래 비중은 12.3%로 최근 10년간 12% 안팎에서 큰 변동이 없었다. 다만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21.7%)이 상장사(7.4%)의 3배에 육박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집단은 대방건설(32.9%), 중앙(28.3%), 포스코(27.5%) 등이었고, 금액 기준으로는 현대자동차(59.9조원), SK(52.8조원), 삼성(33.7조원) 순이었다. 상위 5개 집단이 전체 내부거래 금액의 65% 이상을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SI업종(J62)이 5년 연속 내부거래 비중 1~2위(60~63%)를 기록했다. 내부거래 금액 기준으로는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C30)이 43.8조원으로 2020년보다 50% 이상 늘며 1위를 차지했다.

총수일가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비례하는 경향도 재확인됐다. 최근 5년간 총수일가 또는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상승하는 구조가 뚜렷했다. 상위 10대 집단의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 내부거래 비중은 16.1%로 전체 평균(11.3%)을 크게 상회했다.

상표권 사용료 역시 총수일가 중심 쏠림이 강화됐다. 2024년 상표권 유상사용 집단은 72개로 5년 연속 증가했고, 이중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회사가 수

취한 사용료가 총액의 81.8%에 달했다. 특히 연간 1000억원 이상 상표권 수취 집단이 LG·SK·한화·CJ·포스코 등 7곳이나 됐다. CJ는 매출 대비 상표권 수취 비중이 54.8%로 가장 높았다.

자금·자산 거래에서도 계열 간 대규모 내부거래가 이어졌다. 국내 계열사 간 차입금 규모는 34.4조원, 유가증권 내부거래는 206.8조원에 달했다. 삼성, 미래에셋, SK의 유가증권 내부거래가 두드러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크다고 해서 부당 내부거래 소제가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총수 있는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10년째 감소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내부거래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당한 내부거래 발생 여부를 면밀히 감시하고, 주요 내부거래 현황을 상세하게 공개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적 감시와 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집단 자발적으로 내부거래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농협네트웍스와 충주시가 ‘지역경제 및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농협중앙회

## 농협네트웍스-충주시, 농촌 활성화 맞손

### 농촌체험관광 상품 개발 등 협력

농협네트웍스와 충북 충주시가 ‘지역경제 및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3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일 충주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양측은 ▲농촌체험관광 상품 개발 및 운영 ▲도시민 체험비 지원 ▲지역 네트워크 공유 등의 분야에서 상호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행사에는 송병환 농협네트웍스 대표이사과 조길형 충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송병환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충주시 농촌경제와 도시민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도시민에게 농촌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촉구하며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협네트웍스는 국내 유일의 농업·농촌전문여행사이다. 지난 13년간 지자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약 48만 명의 도시민을 농촌 지역으로 송객하며,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농협의 공익적 역할을 위해 앞장서 왔다.

/세종=김연세 기자

## 농식품부-aT, 中서 ‘K-푸드 홍보관’ 운영

### 산동성 ‘한중 우호주간’ 맞아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중국 칭다오에서 유통매장 올레(Ole)와 연계한 ‘한국식품질’ 판촉전 및 완상청 내 ‘K-푸드 홍보관’ 운영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3일 aT에 따르면 이 행사는 주중한국대사관이 6년 만에 재개한 산동성 ‘한중 우호주간’(11월 19~22일)을 맞아 개최됐다.

올레 유통매장은 중국 화룬안자 그룹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삼, 과자, 주류, 유제품 등 인기 K-푸드를 포함해 전세계 수입식품을 함께 취급한다. 중간브랜드인 Blt매장까지 합산

하면 중국 전역에 122개 매장이 분포돼 있다.

aT는 그중 111개 매장과 협업해 ‘한국식품질’ 할인 행사를 11월 한 달간 실시로 진행했다. 특히, 한중 우호주간에는 칭다오시 최대 소포물 완상청 소재의 올레 매장에 K-푸드 특별전시관을 설치했다.

홍보관에서는 라면과 음료, 견과류 조제품, 장류, 주류 등 품목을 수출하는 국내 식품기업 41개사의 72개 제품을 선보였다. 동시에 중국 주요 온라인몰(티몰, 징둥, 더우인)에서 상설 운영 중인 ‘한국식품관’에 QR코드로 접속해 즉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O2O 판촉을 진행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청년층, 수도권 가면 소득 20% 증가

데이터처, 청년 소득변화  
1년새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  
소득 1분위 31%→21% 급감소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이동한 경우 소득이 20% 넘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층은 소득 증가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층 가운데 소득 1분위 비중이 1년 사이 30.7%에서 21.0%로 크게 줄었다. 이는 수도권 이동이 저소득 청년들에게 ‘소득계층의 이동 통로’로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데이터처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인구이동에 따른 소득변화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2023년 비수

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소득자는 18만8000명으로 이중 청년층은 13만1000명(69.9%)을 차지했다.

이 중 기존 거주 권역을 벗어나 다른 권역으로 이동한 청년은 31만8000명(63.9%)에 달했다. 여기서 권역간 이동이란 5급3특 권역 경계를 넘어 이동한 경우를 뜻한다.

권역 간 청년 이동률은 남성(3.2%)로 여성(2.9%)보다 0.3%포인트(p) 높았다. 다만 수도권으로의 이동률은 여성(1.3%)이 남성(1.2%)보다 0.1%p 높았다.

권역 간 순이동률을 보면, 수도권(0.5%)과 충청권(0.4%)은 빠져나가는 청년보다 들어오는 청년이 더 많았고, 대경권(-1.1%)과 동남권(-1.1%), 서남권(-1.0%)은 더 많은 청년이 유출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천원 아침밥’ 확대

농식품부, 새 정부 출범 6개월 성과  
내년 10개 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빈집은행 플랫폼 구축, 거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6개월간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및 쌀값 안정 등 농업·농촌 분야에서 정책 혁신 성과를 창출해 왔다고 3일 밝혔다.

특히 과감한 혁신 기조를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간 농식품부 장관과 차관이 농업현장을 89차례 방문하고, K-농정협의체 등을 통해 농업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 왔다.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은 내년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선도모델 구축을 위해 7개 지역을 선정할 데 이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3곳이 추가돼, 총 10개 지역에서 내년부터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은행골식당에서 학생들과 함께 ‘천원의 아침밥’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농촌 빈집 정책도 본격화했다. 빈집 철거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농식품부로 이관되면서 농촌 빈집 관리를 전담한다. 농촌 빈집은행 플랫폼(‘그린대로’)을 구축해 실제 거래가 이뤄지도록 지원 중이다. 체계적인 정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또 대여 방식의 정부양곡 공급과 시

장격리를 병행해 올레 수확기 쌀값을 관리 중이다. 쌀 소비 감소 대응을 위해 대학생 대상의 ‘천원의 아침밥’을 10월부터 산단 근로자까지 확대했다.

추석·김장철 등 수요 집중기에 공급 확대와 할인지원(추석 500억 원·김장철 300억 원)을 시행해, 추석 상차림 비용은 전년대비 1.8%, 김장비용은 5.6% 낮췄다.

아울러 공공배달앱 활성화와 외식 소비쿠폰 지급으로 외식업체의 중개수수료 351억 원 절감 효과를 냈다.

올해 9월에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도매시장의 누적 거래액이 1조 원을 넘어서는 등 유통구조 혁신을 이어갔다. 생산자단체 중심의 계란가격 조사 체계를 투명하게 개선하기도 했다.

올해 기본직불금 지급 규모는 2조 3843억 원으로 역대 최대다. 필수농자재 가격 급등 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필수농자재법’도 제정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기후부, 오늘 ‘배출권거래제’ 민관 간담회

### 제4기 할당계획 준비상황 등 공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민관 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달 4일 서울 강남구 토즈모임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간담회에서는 제4기 할당계획 준비상황 공유 및 기업 의견

수렴 등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할당대상업체들은 내년부터 제4기 할당계획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 받고 제도를 이행하게 된다.

이번 간담회에선 정부 및 주요 업종

별 협회·기업 및 발전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다. 제4기 할당계획 후속조치 과제 및 기업지원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업종별 협회, 주요 기업, 발전사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또 제4기 할당계획부터 도입하는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제도(K-M SR)’와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 연구팀이 유럽, 미국 등 해외 제도 운영 현황과 국내 적용 방안에 대해 소개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 미국 휴스턴 해양 기술 전시회 2026

##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2026

개최 기간 : 2026년 5월 4일 (월) ~ 2026년 5월 7일 (목)

개최 장소 : 미국 휴스턴 / NRG Center

OTC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는  
매년 5월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해양 플랜트 전시회입니다.  
이 전시회는 오일, 가스, 에너지 분야의 주요 기업들이 참가하며,  
최신 기술 동향과 혁신적인 기술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주요 구성 및 프로그램

- 유정기기 및 오일가스 수송 관련 제품
- 조선 및 해양플랜트 기자재
- 석유 및 가스 운송 장비
- 탐사장비
- 밸브 및 안전 장비
- 해저 파이프라인 및 플로우라인 기술
- 기술 발표 및 세미나
- 워크샵 및 기술 교류 프로그램



# 2026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STEERING OFFSHORE ENERGY INNOVATION INTO THE FUTURE

박람회 및 전시회

NO	행사 명	개최 기간	국가 및 도시
1	엠티엠 메탈 월드 엑스포 [MTM EXPO SHANGHAI 2025]	25년 12월 02일 ~ 12월 04일	중국 / 상하이
2	상해 조선해양기술 박람회 [MarinTEC CHINA 2025]	25년 12월 02일 ~ 12월 05일	중국 / 상하이
3	상해 국제 금속 및 야금 박람회 [Metal World Expo 2025]	25년 12월 02일 ~ 12월 04일	중국 / 상하이
4	2026 국제 금형 주조 다이캐스팅 전시회 [EUROGUSS]	26년 1월 13일 ~ 1월 15일	독일 / 뉘른베르크
5	와이어/튜브 전시회 2026 [Wire&Tube Düsseldorf 2026]	26년 4월 13일 ~ 4월 17일	독일 / 뒤셀도르프
6	휴스턴 오프쇼어 박람회 2026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2026]	26년 5월 4일 ~ 5월 7일	미국 / 휴스턴
7	고기능 금속 전시회 2026 [Material JAPAN 2026]	26년 5월 13일 ~ 5월 15일	일본 / 오사카
8	밸브 월드 엑스포 캘거리 2026 [Valve World Expo Calgary 2026]	26년 6월 3일 ~ 6월 4일	캐나다 / 캘거리
9	상해 다이캐스팅 산업 박람회 2026 [CHINA DIECASTING 2026]	26년 7월 15일 ~ 7월 17일	중국 / 상하이
10	슈투트가르트 국제 금형 박람회 2026 [Moulding Expo 2026]	26년 9월 14일 ~ 9월 18일	캐나다 / 캘거리
11	상해 국제 와이어 및 케이블 박람회 2026 [Wire&Tube Shanghai 2026]	26년 9월 21일 ~ 9월 24일	중국 / 상하이
12	어반스틸 엑스포 2027 [USE 2027]	27년 4월 20일 ~ 4월 23일	독일 / 뒤셀도르프

- 

고객의 일정과 목적에 최적화된  
맞춤형 일정 구성 및 솔루션 제공
- 

글로벌 박람회 및 전시회  
에어텔 및 입장권 예약
- 

국가별 비자 신청 대행
- 

개별여행, 인센티브 관광  
MICE 등 여행 솔루션 제공

www.sn miles.com

기업 전문 여행사, **에스앤마일즈**



QR코드 스캔  
카카오톡 채널 연결  
등록후 상담원연결 가능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20 S&M빌딩 6층  
문 의 : 강성민 차장 T. 02-3487-2800 F. 02-583-4135 E. smkang@snmile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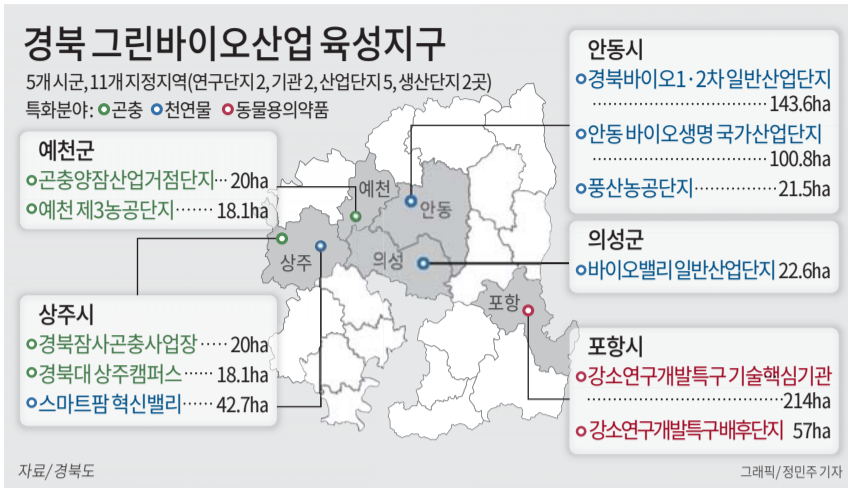
# 경북도, 동물용 의약품·곤충·천연물 특화 그린바이오 육성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선정  
5개 시군, 11개 기관·산단 포함  
2031년까지 4725억 투입 예정

경북도는 농업축산식품부가 추진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바이오산업은 레드(의약), 그린(농업·식품), 화이트(에너지·소재)로 구분되며, 그중 그린바이오는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 농업과 전후방 산업 전반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 성장산업이다. 농식품부는 국가 차원의 대응을 위해 지난 6월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해 경북도를 포함한 7개 지역을 육성지구로 확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경북도 그린바이오 산업 혁신융합지구는 식품, 천연물, 미생물, 곤충, 종자, 동물용의약품 등 6대 분야 중 동물용 의약품, 곤충, 천연물 3개 분야를 특화해 추진한다. 육성지구에는 포항, 안동, 상주, 의성, 예천 등 5개 시군의 11개 기관과 산업단지가 포함되며 전체 면적은 756ha로 전국 최



대 규모다.

육성지구 지정에 따라 기업에는 그린바이오 분야 국비사업 참여 자격과 입주 가점이 부여된다. 지자체는 지구 내 시설과 용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민간에 사용·대부할 수 있게 돼 기업 지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육성지구에는 33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90개 기업이 입주·투자의 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경북도는 이들 기업과 함께 경북형 밸류체인을 완성해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비전

을 제시했다. 3대 분야 중심의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유니콘기업 3개사 육성, 수출 1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31년까지 산업화 지원과 인프라 구축 등에 총 4725억원이 투입된다. 이 중 1700억원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나머지는 국비 확보와 지역활성화 펀드, 농식품부 그린바이오 전용펀드 등을 연계해 단계적으로 집행된다.

분야별 거점기관은 동물용 의약품은 포항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곤충

분야는 예천 곤충양잠산업거점단지, 천연물 분야는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이 맡아 식품, 화장품, 의약품 개발과 산업화를 추진한다.

경북도는 육성지구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내에 추진단을 설치해 초기에는 행정 주도로 기반을 다지고, 이후 민간 중심의 자생적 거버넌스 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를 통해 연간 20개 이상의 스타트업 배출, 사업화 기간 30% 단축, 2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1조원 이상의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원료 소재 발굴과 계약재배 확대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 전후방 산업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는 농업과 기업 간 새로운 상생 모델이며 미래 농업이 신산업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경북 그린바이오산업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선도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영주시

#### 수자원공사에 상수도 위탁

영주시가 상수도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손을 잡았다. 이번 협약으로 전문기관에 상수도 전반을 위탁해 물 관리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구간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수자원공사는 오는 2026년 1월부터 2035년 12월까지 10년간 영주동·후천동·상망동·하망동 일대 상수도 시설을 운영하게 된다.

/영주(경북)=손기섭 기자

### 군산시

#### 군산 선교역사관 개관식

군산시는 2일 구암동 현지에서 군산 선교역사관 개관식을 열고 근대 선교역사의 가치를 돌아보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종교계, 시민,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근대 선교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선교역사관 개관식을 축하했다.

군산 선교역사관(구암동 334)은 지난 2022년부터 총사업비 62억원을 들여 조성된 시설로, 지역의 근대 교육기관이었던 ‘멜볼린 여학교’의 모습을 본떠 건축돼 역사적 의미를 더했다.

/군산(전북)=정훈 기자 taiji1819@

### 완도군

#### 해양치유센터 개관 2주년 맞아

국내 최초 해양치유 전문 시설인 완도해양치유센터가 개관 2주년을 맞았다.

해양치유산업은 우리나라 해양신산업으로, 완도군은 선도 지자체로 투자 및 운영 체계 구축에 힘써왔다.

지난 2023년 11월 해양치유센터는 개관 이후 운영 안정화 단계를 거쳐 프로그램을 고도화하며 누적 이용객 12만 명을 기록했다.

개인·가족 단위 방문객을 비롯해 건강관리를 위한 고령층과 장기 치유객, 기업 연수, 스포츠팀 재활 등 이용층이 다양하게 형성돼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 김해시

####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4개 열려

김해시는 12월 전국 규모 스포츠 4개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5 경남 라인댄스 마라톤 축제’, ‘제1회 김해시 풋살연맹회장배 전국 풋살대회’, ‘제2회 김해시장배 전국 킥복싱대회’, ‘제42회 대한배드민턴협회장기 생활체육전국배드민턴대회’ 등이 개최된다.

또한 김해시는 대규모 스포츠대회 개최를 이어가기 위해 3일 ‘김해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의 3개년 유치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 김해시와 한국실업육상연맹, 한국대학육상연맹, 경남육상연맹 4개 기관의 협약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전국 육상대회 유치와 안정적 개최를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협약을 체결한다.

/김해(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 경남도, 산재예방 우수기업 8곳 선정

모범기업, 내년부터 장려 혜택 받아  
올해 선정업체, 5개 → 8개로 확대

경남도가 산업재해 예방에 앞장선 도내 기업 8곳을 2025년 우수 기업으로 인증했다고 밝혔다.

도는 청립열처리, 원비두기술, 김스 엔지니어링, 에어로디스펜싱솔루션, 백산기업, 준우기업, 진영에이치앤에스, 디유환경을 우수 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들 기업은 안전 설비 구축, 근로자 안전교육·건강관리, 안전보건 관리체계 마련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했다. 경영 책임자가 적극 나서 현장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고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에 뒀다.

법규상 의무 이행을 넘어 지게차 스마트 알람 센서 같은 안전 장비에 세심하게 투자했다. 공정별 맞춤형 위험성

평가와 개선 조치를 진행해 지난 3년간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해왔다.

올해로 3년째를 맞는 이 인증 사업은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 중 산업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모범 기업을 골라 장려 혜택을 주는 제도다.

도는 올해 선정 업체를 5개에서 8개로 확대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우대, 안전보건 컨설팅, 법정 안전보건교육 제공 등 지원 혜택도 크게 늘렸다.

지난 9월 접수를 시작해 서류 심사, 고용노동부 지정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현장 평가, 경남도 산업재해예방위원회 의 최종 심의 등을 거쳐 선정 작업을 마쳤다.

인증 기업들은 내년부터 각종 장려 혜택을 받는다. 인증서와 현판도 받는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 목포시,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 공유

“최우선 과제, 재정건전성 확보”

목포시는 지난 2일 목포시의회 제 401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재정 운영 방향과 주요 편성 내용을 밝혔다.

조석훈 목포시장 권한대행은 “2026년 시정의 최우선 과제는 재정건전성 확보”라고 강조하며, 재정 여건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삶과 목포의 미래를 위한 투자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올해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역산업 침체와 인구 감소가 지속되며 시 재정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출구조 조정 ▲세입 증대와 세출 효율화 ▲국·도비 보조사업 재정비 등을 중심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행정운영경비 30% 절감, 행사·축제비 20% 조정, 불요불급 사업 전면 재검토 등 실질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이미 단행했다.

목포시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1조 267억원으로, 일반회계 9421억원, 특별회계 846억원이다. 시는 미래성장산업, 관광·문화, 사회복지 등 7대 분야에 재정을 집중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 나주시, ‘국립 에너지 전문과학관’ 유치

2030년 완공 목표... 460억 투입

전라남도 나주시가 전국 유일의 ‘국립 에너지 전문과학관’ 유치에 최종 성공했다.

시는 2026년 정부 예산안에 기본계획 수립비가 반영되면서 사업이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히며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에너지 산업, 미래 과학, 교육 콘텐츠를 아우르는 국가 단위 핵심 플랫폼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3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 12월 2일 국회 의결을 거친 ‘2026년 정부 예산안’에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 건립 기본계획수립비 5억원이 반영됨에 따라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은 전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 조감도 /나주시

국 유일의 에너지 특화 과학문화시설로 나주는 지난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국가사업 추진의 분수령을 넘었다. 이번 예산 반영으로 2026년에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게 된다.

국립 나주 에너지 전문과학관은 총사업비 460억원(국비, 지방비 각 50%)이 투입되며 빛가람동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에 연면적 6805㎡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나주(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울진군,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합동설명회

오는 10일 열려... 주요계획 등 공개

울진군이 원자력 기반 수소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울진 원자력수소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주민 대상 합동설명회가 오는 10일 열리며, 주요 계획과 영향평가 초안이 본격 공개된다.

군은 오는 10일 죽변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북개발공사가 주관하며, 울진군과 관련 용역사, 기관이 참석해 산업

단지 추진 전반을 소개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산업단지계획(안)을 비롯해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초안, 기반시설 계획, 향후 추진 일정 등이 상세히 안내된다.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은 죽변면 후정리 일원 144만8600㎡(약 44만 평) 부지에 조성된다. 총 4334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원자력과 연계한 수소 대량생산 기지를 구축해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진(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 간판 떼고, 점포에 패션·뷰티 가득… 편의점 ‘특화 전략’

세븐일레븐 뉴웨이브 플러스 명동점 K-팝 팬덤존 등 외국인 필수코스

이마트24 트렌드랩 성수점 오픈 게임·애니메이션 굿즈 등 준비

국내 편의점 4사가 다점포 경쟁이라는 양적 성장을 멈추고 특화 생존 전략으로 급진화하고 있다. 전국 편의점 수가 5만5천 개를 돌파하며 시장 포화가 현실화되자,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는 핵심 상권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어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하고 객단가를 높이겠다는 질적 성장 전략이다.

세븐일레븐은 지난 10월 서울 중구 명동에 ‘뉴웨이브 플러스’ 명동점을 열며 특화 매장 경쟁에 불을 지폈다. 기존 편의점의 틀을 깨고 패션·뷰티 콘텐츠와 K-컬처를 전면에 내세운 이 매장은 명동이라는 입지 특성을 십분 활용해 확실한 성과를 내고 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뉴웨이브 명동점은 호텔 건물에 입점해 있어 외국인 방문 비중이 일반 명동 상권보다 10%p 높은 90%가량에 달한다”며 “라면, 건강식품, 뷰티 상품 등 외국인 선호 품목의 매출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투숙객에게 편의점 조식 쿠폰을 패키지로 판매하거나, 매장 내



특화 점포로 새롭게 내세운 세븐일레븐 뉴웨이브 명동점 전경.

/세븐일레븐

‘글로벌 K-팝 팬덤존’, ‘뽑기존’ 등을 마련해 외국인 관광객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다. 세븐일레븐은 지난달 말 뉴웨이브명동대로점, 뉴웨이브대전롯데점을 추가로 여는 등 뉴웨이브 모델을 공격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가운데 연내 비수도권 거점 지역에도 추가 오픈을 추진하고 있다.

이마트24 역시 최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첫 번째 플래그십 스토어 ‘이마트24 트렌드랩 성수점’을 오픈하며 맞불을 댔다. 편의점 간판을 떼고 공사장에서 불법한 가설작업대와 노출 콘크리트 인테리어를 적용하는 파격을 감행했다.

이마트24 관계자는 “서울에서 가장 합한 성수 상권의 1020 젠지(Gen Z) 세

대와 트렌드에 민감한 30대 여성을 핵심 타깃으로 잡았다”며 “실제로 오픈 직후 게임·애니메이션 굿즈 등 IP 상품과 조선히otel 셰프 협업 간편식, 어뮤즈 토티 등 뷰티 제품의 반응이 뜨거워 지난 주말에는 입장 대기 줄이 이어질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마트24는 이번 성수점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4개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

GS25와 CU 등 선두 주자들도 ‘카테고리 킬러’형 매장 구축에 한창이다. GS25는 주류 특화(전주), 야구단 협업(잠실), 카페 강화(합정) 등 상권별 맞춤형 매장을, CU는 ‘뮤직 라이브러리(홍대)’, ‘K-푸드 특화(인천공항)’ 등 테마형 매장을 확대하며 단순 소매점을 넘

어선 목적지로서 편의점을 지향하고 있다.

업체가 이처럼 고비용을 감수하며 플래그십 스토어에 공을 들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수익 구조의 변화’ 필요성 때문이다. 점포 수가 포화 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단순 방문객보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와 지갑을 여는 소비자를 잡아야 한다는 계산이다.

현재 국내 편의점 시장은 CU(1만 7762개)와 GS25(1만 7390개)가 전체 매출의 약 70%를 점유하며 공고한 벽을 쌓은 상태다. 반면 후발 주자인 세븐일레븐은 올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84% 급감했고, 이마트24는 9분기 연속 적자(3분기 영업손실 78억 원)를 기록하며 성장 한계에 직면했다. 이미 점포 수가 포화 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단순 출점 경쟁만으로는 판을 뒤집기 어렵다는 판단이 선 것이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편의점 과밀화로 브랜드 차별화가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됐다”며 “특화 점포를 통해 고객의 방문 목적을 명확히 하고, 매장 체류 시간을 늘림으로써 한 번에 여러 품목을 구매하게 하는 ‘크로스셀링(교차 판매)’ 효과와 높은 객단가를 유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 이마트24

### 트릭컬 리바이브 맞손 빵·간편식 등 9종 출시

이마트24가 모바일 게임 트릭컬 리바이브와 손잡고 선보인 협업 상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마트24는 트릭컬 리바이브 IP를 활용한 콜라보 빵·디저트 6종과 간편식 3종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이마트24 트렌드랩 성수점에서 진행된 얼리버드 이벤트(11월 28~30일)는 사전 예약이 하루 만에 마감됐으며, 해당 기간 굿즈 상품 매출은 3000만원을 넘어섰다.

이번에 출시된 디저트 상품은 카라멜맛쿠키, 버터바, 초코아몬드데니쉬, 딸기존드모짜빵, 딸기케이크, 솔티우 유크림도넛 등 6종이다. 간편식으로는 불제육정찬, 더블치즈싱글버거, 바질펜네파스타 등 3종이 마련됐다. 모든 상품 패키지에는 게임 캐릭터 디자인이 적용됐으며, 56종의 피부셀이 랜덤으로 동봉돼 수집의 재미를 더했다.

이마트24는 12월 한 달간 협업 상품 구매 후 앱으로 응모한 고객을 대상으로 테마극장 디오라마 피규어, 앱 할인 쿠폰 등을 매일 추첨 증정한다. 또한 이벤트에 5회 이상 참여한 고객에게는 인게임 피규어 쿠폰을 지급하며, 추첨을 통해 아크릴 스탠드, 장패드 등 굿즈도 제공할 예정이다.

/손종욱 기자

# 퀴진케이, 영국서 글로벌 한식 영셰프 발굴 나서

CJ제일제당, K-소스 한식 요리대회 ‘된장 파스타’ 엔젤 엘레마이크 우승

CJ제일제당의 ‘퀴진케이(Cuisine. K)’가 영국의 명문 요리학교와 손잡고 글로벌 한식 영셰프 발굴에 나섰다.

CJ제일제당은 최근 영국 런던에서 열린 ‘K-소스 한식 요리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영국의 교육기관 CCC(Capital City College)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한식진흥원에서 주관하고, CJ제일제당 퀴진케이가 단독 후원했다.

CCC 산하 웨스트민스터 킹스웨이

칼리지는 10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 최초의 요리학교로, 스타 셰프 제이미 올리버를 배출한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대회는 ‘고추장과 된장을 활용한 캐주얼 한식 요리’라는 주제로, K-소스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됐다.

본선에서 영셰프들은 한국의 전통 장류를 메인으로 한 다양한 한식 메뉴를 선보였다. 특히, CJ제일제당의 고추장과 된장 제품을 활용해 한식의 깊은 풍미를 구현했다. 치열한 경쟁 끝에 tv N 드라마 ‘폭군의 셰프’ 속 ‘된장 파스

타’를 선보인 엔젤 엘레마이크(Angel Elemike) 셰프가 우승을 거머쥐었다.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인 된장을 활용해 감칠맛을 살린 소스와 섬세하고 정교한 플레이팅으로, 심사위원들의 큰 호평을 이끌어냈다.

우승자에게는 ‘퀴진케이(Cuisine. K)’ 로고가 새겨진 고급 나이프 세트가 주어졌으며, 3등까지는 한식 다이닝 식사권이 제공됐다. 대회에서 입상한 한식 요리들은 ‘레시피 북’으로 제작돼 퀴진케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CJ제일제당은 앞으로도 퀴진케이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한식 요리대회를 지원하며 글로벌 한식 인재 발굴에 주력할 계획이다.

홍종욱 CJ제일제당 Hansik245팀 프로젝트 담당자는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영국에서 한식의 매력을 알리고, 현지 차세대 한식 인재들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활약 중인 퀴진케이 알럼나이(Alumni) 셰프들과 함께 유망한 한식 영셰프를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세경 기자 seilee@



CU가 CJ제일제당과 손잡고 비비고 만두를 활용한 간편식 시리즈 7종을 선보인다. /CU

## CU-CJ제일제당

### 비비고 만두 활용 간편식 시리즈 7종

CU가 CJ제일제당과 손잡고 비비고 만두를 활용한 간편식 시리즈 7종을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식품 제조사와의 전략적 제휴의 일환이다. CU는 앞서 농심, 오투기 등과 협업한 간편식으로 큰 호응을 얻었으며, CJ제일제당과는 프리미엄 냉장빵을 선보여 6개월 만에 30만 개 판매고를 올린 바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간편식 시리즈는 비비고 만두를 통째로 넣어 식감과 풍미를 살렸다. 왕교자 김밥 2종은 김밥 한 줄에 왕교자 만두 3개를 넣었으며, 3XL 물만두 강정 삼각김밥은 튀긴 물만두에 떡볶이 소스를 입혔다.

겨울철 국물 수요를 겨냥한 떡만두국은 사골 육수에 고기, 김치 왕교자를 담았다. 너비아니&왕교자 한상 도식락은 만두와 너비아니, 한식 반찬 4종으로 구성했다.

/손종욱 기자

## 오리온, 연말 홈파티용 한정판제품 출시

브라우니 등 DIY과자세트 인기

오리온은 다가오는 연말 홈파티를 더욱 달콤하고 즐겁게 만들어 줄 다양한 크리스마스 한정판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브라우니 루돌프 하우스 만들기’와 ‘후레쉬베리 아기팬권 친구들 만들기’는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만들며 즐길 수 있는 DIY 과자 세트다. 마켓오 브라우니, 톱크, 초코파이, 후레쉬베리 등 인기 제품으로 구성됐다. 동봉된 초코펜을 활용해 나만의 루돌프 하우스와 팬권, 북극곰 등을 만들고 꾸밀 수 있어 맛있는 간식은 물론 특별한 추억까지 선사한다.



오리온 한정판 과자 5종.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주문해 가족, 친구, 직장동료에게 선물할 수 있는 어드벤처 캘린더와 과자 선물 세트도 출시했다. ‘크리스마스 익스프레스 어드벤처 캘린더’와 ‘오리온 어드벤처 캘린더’는 각각 기차와 굴뚝집을 콘셉트로 디자인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살렸다.

/이세경 기자 seilee@

## 이마트 ‘4950원 화장품’ 일상용품 확대

남성용 기능성브랜드 더마티션 론칭

이마트가 4950원 화장품의 인기에 힘입어 일상용품 전반으로 상품 출시를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마트는 올해 4월 LG생활건강과 협업해 4950원이라는 가격과 상품력을 갖춘 화장품 브랜드 글로우:업 바이 비온드를 선보였다. 이 브랜드는 탄력 광채, 수분 진정, 영양 장벽 등 라인업을 확장하며 인기를 끌었다. 특히 콜라겐 바쿠치를 탄력광채 아이앰플은 대형마트에서 보기 드문 고기능성 제품으로 첫 히트작이 됐다.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이마트는 허브에이드, 원씽, 다나한 등 피부 고민

별 브랜드를 연달아 출시해 현재 총 10여 개 브랜드, 누적 판매량 16만 5000개를 돌파했다. 지난달에는 용산점에 전용 매대인 4950원 뷰티샵을 도입하기도 했다.

이날 이마트는 토니모리와 협업해 남성용 기능성 브랜드 더마티션을 론칭하고 신제품 9종을 선보였다.

이마트는 오는 2026년부터 4950원 전략을 화장품을 넘어 헤어케어, 세제, 제지 등 일상용품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1월에는 닥터그루트 탈모케어 샴푸, 그라비티 샴푸, 유한킴벌리 좋은느낌 생리대 등 10여 종을 이마트 전용 상품으로 출시한다.

/손종욱 기자

# CJ올리브영, 외국인 매출 1조… K-뷰티 글로벌 허브 부상

외국인 구매 전체 매출 비중 25% 명동·성수 중심으로 K-뷰티 성지화 지역 특화매장 확대, 관광동선 흡수 비수도권 외국인 구매 87배 급증 기초·색조·헬시푸드 등 품목 다변화

CJ올리브영이 글로벌 소비자를 대상으로 K뷰티를 확산하며 국산 화장품 입지를 해외 시장으로 넓히고 있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방한 외국인을 정조준한 'K쇼핑' 전진 기지로 자리잡고 있다.

CJ올리브영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발생한 방한 외국인 누적 구매 금액이 1조원을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체 매출의 25%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CJ올리브영은 올해 3분기까지 4조253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실제로 외국인 대상 세금환급 서비스 기업 글로벌텍스프리에 따르면, 같은 기간 국내 화장품 결제 시 외국인 세금 환급이 발생한 건수의 88%는 올리브영 매장에서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서 화장품을 구매하는 외국인 10명 중 9명이 올리브영을 찾은 것이다. 또



‘올리브영N 성수점’에 입장하기 위해 외국인 고객들이 줄을 서고 있다.

/CJ올리브영

해당 외국인 국적 수는 유엔정회원국 기준 190개국로, 올리브영을 통해 전 세계 다양한 외화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리브영은 국내 대표 관광 상권에서 특화 매장을 선보이는 등 K뷰티와 K관광을 연계하기 위한 전략을 펼쳐왔다. 2023년 11월 서울 명동에 위치한 ‘올리브영 명동 타운점’을 재정비한 것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전담 조직을 신설해 글로벌 고객에게 눈높이를 맞춘 상품·서비스·공간 등을 지속 선

보였다.

지난해 11월 문을 열어 최근 개점 1주년을 맞이한 ‘올리브영N 성수점’의 경우 대표적인 K뷰티 성지로 알려졌다. 올리브영이 해당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127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 설문조사에서 ‘올리브영N 성수점 방문을 사전 계획했다’는 응답이 86%에 달했다.

올리브영은 한국 관광 수요가 비수도권으로 확대되고 있는 최신 유행도 적극 반영했다. 경주황남점, 제주함덕점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매장을 전국 각지에

구축했다. 올해 11월 기준 글로벌 관광 상권 매장 수는 135개로 전년 60개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또 유명 관광지뿐 아니라 로컬 상권과 주거 지역까지 찾은 이른바 ‘데일리 케이션’ 흐름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동선도 넓어지고 있다. 올해 1월~10월 기준 비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구매 건수는 2022년 대비 87배 늘어나며 수도권에서의 증가세 21배를 뛰어 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 200배, 광주 72배, 부산 59배, 강원 58배 등의 순이다.

이와 함께 K쇼핑 목록도 고도화됐다. 올해 1월~10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구매 증가율은 기초화장품이 50%, 색조 화장품 43%, 헬시라이프 45%, 헬시푸드 42% 등을 기록했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방한 외국인 구매액 1조 달성은 중소·인디 브랜드가 올리브영을 통해 전세계 고객을 만나며 함께 이룬 성취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K뷰티가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한국을 다시 찾는 이유이자 국내 인바운드 관광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애경산업

### 투에딧×세송 협업 출시

잘파세대 겨냥한 감성 디자인

애경산업은 메이크업 브랜드 ‘투에딧’이 인기 캐릭터 ‘세송’과 협업한 신제품 5종을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세송은 동글동글하고 귀여운 외모로 1020잘파세대에게 사랑받고 있다. 이번 신제품에도 세송 디자인이 적용됐고, 투에딧 브랜드 장점인 커버력과 함께 반질 반질한 피부 표현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전달한다.

투에딧 반질 밀착 베이스는 수분 에센스를 96% 함유해 피부를 촉촉하고 매끄럽게 정돈하는 제품이다. 수분 가득한 제형이 피부를 도자기처럼 가꿔주고 다음 단계 화장이 들뜨지 않게 돕는다.

투에딧 반질 커버 쿠션은 답답함 없이 얇게 밀착되는 것이 특징이다. 피부 색상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21호 피부를 위한 밝은 베이지 ‘01 라이트’, 23호 피부를 위한 자연스러운 베이지 ‘02 내추럴’ 등 2종으로 구성됐다.

투에딧 반질 코팅 메이크업 픽서는 메이크업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이청하 기자

# JW중외제약, 통풍신약 ‘에파미뉴라드’ 美 용도특허 확보

에파미뉴라드 美 용도특허 확보 18개국 특허 등록, 주요국 심사 진행 임상 3상 순항 DSMB 연속 권고

JW중외제약은 통풍치료제 에파미뉴라드(코드명 URC102)가 미국 특허청(USPTO)으로부터 용도(용법·용량)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허 등록은 에파미뉴라드의 물질특허와 함께 후발주자의 시장 진입을 방어할 수 있는 핵심 지적재산권(IP)으로 평가되며, 미국 시장에서 독점 기간을 기존 2029년에서 2038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에파미뉴라드의 용법용량 특허는 한

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을 포함한 총 18개국에 등록됐으며, 유럽, 일본, 중국 등 11개국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미국 특허 등록은 타 국가의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에파미뉴라드는 요산 배설 촉진제로, 인간 요산 수송체 1(hURAT1)을 선택적으로 저해하는 기전을 갖췄다. 혈액 내에 요산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고요산혈증 및 통풍 질환에 유효한 신약 후보물질이며 먹는 약으로 개발되고 있다.

JW중외제약은 에파미뉴라드를 ‘계열 내 최고 신약(Best-in-Class)’으로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5개 국가에서 에파미뉴라드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다. 해당 임상은 오는 2026년 4월 마지막 환자 투약을 완료하고 2026년 말에는 결과보고서가 도출될 예정이다.

앞서 임상 3상 중 약물 안전성을 독립적으로 검토하는 안전성모니터링위원회(DSMB)는 지금까지 총 네 차례 회의에서 모두 계획대로 임상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DSMB의 연속적 권고는 에파미뉴라드의 안전성과 데이터 신뢰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임상 2상에서는 1차 및 2차 유효성

평가변수를 모두 충족했으며, 우수한 안전성·내약성도 확인됐다.

JW중외제약은 미국·유럽 등 선진시장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기술제휴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중국 심시어제약에 중국·홍콩·마카오 지역 대상 권리를 기술수출한 바 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이번 미국 용도 특허 등록은 에파미뉴라드의 지적재산권(IP) 기반을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한 중요한 성과”라며 “독점 기간이 2038년까지 확대된 만큼 글로벌 사업 가치와 전략적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신제품 ‘투에딧x세송’ 5종

/애경산업

## 동화약품

### ‘마그랩’ 日 판매 본격화

로프트 등 현지 채널 3종 입점

동화약품은 지난 11월부터 일본에서 ‘마그랩’ 일본 전용 제품을 본격 판매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마그랩은 동화약품의 마그네슘 건강기능식품 전문 브랜드이며, ‘리셋’, ‘포 에너지’, ‘젤리푸푸’ 등 현지 맞춤형 제품 3종은 일본 최대 유통 채널 로프트 등에 입점했다.

‘포 에너지’는 마그네슘에 비타민B군을 균형 있게 배합해 활력을 충전해 주는 제품이다. ‘젤리푸푸’는 망고 맛 젤리 제형으로 설계됐고 난소화성말도덱스트린을 함유한다.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동화약품은 이처럼 현대인 건강에 초점을 맞춘 제품군을 선보이며 로프트를 비롯해 다양한 유통 채널과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박람회 참가,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마그랩 일본 진출로 동화약품을 일본 소비자에게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며 “현지 브랜딩 강화 및 제품 라인 확대에 속도를 내어 마그랩이 K 건강식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 LG생건, CU·GS서 ‘잭콕 RTD’ 선보

알코올 5%… 깔끔한 맛 강조

LG생활건강은 오는 11일부터 전국 CU와 GS25 편의점 등에서 ‘잭다니엘&코카-콜라 제로슈가’ (사진)를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

코카-콜라음료의 이번 신제품은 미국을 대표하는 위스키 브랜드 잭다니엘과 코카-콜라를 최적의 레시피로 조합한 즉석음료(RTD)다. 클래식 카테일인 ‘잭콕’을 RTD로 간편히 즐길 수 있다. 알코올 함량은 5%이며 단맛이 강하지 않은 깔끔한 맛이다.

제품 패키지는 위스키가 숙성되는 오크통 이미지를 형상화했고 무광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코카-콜라음료 관계자는 “전 세계에서 사랑받아온 두 브랜드의 매력을 한데



모든 잭다니엘 & 코카-콜라 RTD 제품을 국내 시장에도 공개하게 됐다”며 “풍부한 위스키 풍미에 고객취향을 만족시키는 레시피로 ‘차별적 고객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아시아 지역에서 앞서 일본 시장에서 처음 선보여졌고 이후 일본 여행 등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을 타며 국내 출시 요청이 있었다.

/이청하 기자

## 아모레퍼시픽, 목 전용 항노화 크림 선보여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넥 앤 데콜테’

아모레퍼시픽은 고효능 스킨케어 브랜드 아이오페에서 ‘슈퍼바이탈 넥 앤 데콜테 크림’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얼굴 피부보다 얇아 노화의 징후가 쉽게 드러나는 목 피부를 위한 제품이다. 아모레퍼시픽 최초의 독자 항노화 성분 ‘세노문’, 피부 전문기관의 리프팅 특수케어 효능을 구현한 ‘웍타이드 리프팅 콤플렉스’ 성분 등을 함유한다. 가로, 세로 목 주름과 목 주변을 탄탄하고 매끈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인체적용시험 결과, 사용 직후 목의 가로 잔주름은 20.6%, 세로 잔주름은 14.9%, 사용 4주 후에는 탄력이 41.8%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넥 앤 데콜테 크림’

/아모레퍼시픽

개선되는 등 목과 쇄골을 비롯한 목 주변 피부에서 항노화 효과가 나타났다.

특수 제형인 ‘실기 리프팅 포뮬러’를 적용해 머리카락과 의류가 주로 닿는 목과 어깨 부위에 끈적임 없이 밀착되고 부드럽게 마무리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청하 기자

NARA CELLAR

# 역시! 몬테스

# 결국! 몬테스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와인 부문 2년 연속 1위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 소진공, 담양·합천 지역농가 소비촉진 활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역 농산물을 직접 구매하고 기부하는 활동을 펼쳤다. 소진공은 농한기 농산물 소비 감소와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은 전남 담양·경남 합천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소비 촉진 활동을 지난 2일 펼쳤다고 3일 밝혔다.

/소진공



#### 효성, 마포구 취약계층에 '사랑의 쌀·김치' 전달

효성은 마포구청에서 마포구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쌀', '사랑의 김장 김치'를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기부한 물품은 10kg 김장김치 1500박스와 20kg 쌀 500포대다. 김치는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에서, 쌀은 경상남도 함안군에서 구매했다. (왼쪽부터)이정원 효성 커뮤니케이션실장, 오경희 마포구 부구청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효성



#### 하이트진로, 8년간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 지원

하이트진로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하신 소방공무원 유가족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8년째 이어간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2일 서초동 본사에서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왼쪽 첫번째)와 소방공무원 유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총 16가구에 노부모 생계비, 순직 인정 소생비, 긴급생계비 등 지원금을 전달했다.

/하이트진로



#### 삼표그룹, 자립준비청년에 멘토링·물품 제공

삼표그룹은 취업을 준비 중인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정서적 지지와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은평자립준비청년청과 함께 직무 멘토링을 진행하고 응원 물품을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직무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사회 초년형 경험과 취업 준비 과정에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진로 설정과 사회 진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삼표그룹



#### 롯데칠성음료, '대한민국광고대상' 4개부문 수상

롯데칠성음료가 2일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광고대상'에서 '아이스스' '2% 부족할 때' '칠성사이다' '새로' 각각의 브랜드로 4개 경쟁 부문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한국광고총연합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광고대상은 매년 높은 창의성과 의미 있는 캠페인의 광고를 선별, 시상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종합광고상이다.

/롯데칠성음료

## ‘삼성 아트 스토어’서 세계최대 아트페어 작품 선택

### ‘아트 바젤 마이애미 비치’ 컬렉션 현대 미술작가 24명 작품 구성

삼성전자가 세계 최대 아트 페어의 작품을 ‘삼성 아트 스토어’에 선보인다.

삼성전자는 삼성 아트 스토어에 ‘아트 바젤 마이애미 비치’ 컬렉션을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삼성 아트 스토어는 삼성 TV 전용 예술 작품 구독 서비스로 전 세계 유명 미술관과 예술가들의 작품 4000여 점을 마치 갤러리에서 보는 것과 같은 4K 초고화질로 감상할 수 있다.

아트 바젤은 근현대 미술을 전시하는 세계 최대 아트 페어로 매년 홍콩, 바젤, 파리, 마이애미에서 개최된다.



삼성전자는 삼성 아트 스토어에 ‘아트 바젤 마이애미 비치’ 컬렉션을 공개했다. /삼성전자

이번 컬렉션은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마이애미 비치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아트 바젤 마이애미

비치에 전시된 현대 미술작가 24명의 작품으로 구성됐다.

오늘날 현대 미술계를 정의하는 문

## 국가유공자에 첨단보조기구 지원

### 포스코1%나눔재단

36명에 로봇의수·의족 등 전달

포스코1%나눔재단은 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국가유공자와 현직 소방관·군인 등 36명에게 로봇의수·의족 등 첨단 보조기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포스코1%나눔재단은 지난 2013년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포스코 그룹 3만 8000여 임직원의 기부금과 회사의 매칭그랜트로 운영된다. 재단은 국가보훈부와 함께 지난 2020년부터 ‘국가유공자 첨단보조기구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상(戰傷)·공상(公傷)으로 장애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현직 소방관·군인에게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해 사회 복귀를 돕는 사업으로 올해까지 로봇의수·의족, 다기능 휠체어, 인공지능

(AI) 보청기 등 첨단 보조기구가 총 219명에게 전달됐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군 복무 중 유격훈련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국가유공자 이지운 씨에게 첨단 전동휠체어가, 군 장갑차 정비 중 손 부상을 입은 김도경 육군 중사에게 로봇 의수가 각각 지원됐다.

장인화 포스코 회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를 잊지 않는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강운진 국가보훈부 차관은 “매년 국가유공자분들께 첨단 보조기구를 지원해주는 포스코1%나눔재단에 감사드립니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문화를 굳건히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hale@

## 한미약품, ‘제24 한미참의료인상’ 시상

임선영 산부인과 원장과  
삼성서울병원 한가족의료봉사회

한미약품은 지난 1일 웨스틴 조선 서울 호텔에서 ‘제24 한미참의료인상’ 시상식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한미참의료인상은 2002년 서울특별시사회와 한미약품이 공동으로 제정한 봉사상이다.

올해는 임선영산부인과의원 임선영 원장과 삼성서울병원 한가족의료봉사회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자와 수상단체에는 각각 상금 25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됐다.

임선영 원장은 지난 1986년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여성노숙인 시설인 영보자애원에서 정기 진료 봉사를 이어왔다. 개원 후에는 성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진료봉사를 지속해 왔다. 서울시립 여성노숙인·정신장애인 시설, 청소년성문화센터 등에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지역 검찰청 의료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는 등 참된 의료인의 모습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지난 1일 ‘제24회 한미참의료인상’ 시상식에서 황규석 서울특별시사회복지회장(왼쪽부터), 삼성서울병원 최연현 교수, 임선영산부인과의원 임선영 원장,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미약품

수상 단체인 삼성서울병원 한가족의료봉사회는 병원 개원과 동시에 발족해 현재까지 30년간 국내외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1개 시설에서 약 3만 5000여 명에게 해외 13개 국가에서는 4만여 명에게 무료 진료, 건강검진, 보건 교육 등을 제공했다.

한가족의료봉사회는 지금까지 3000여명 이상의 의료진이 개인 휴가와 자비를 사용해 자발적 의료봉사에 동참함으로써 의료인의 소명감과 나눔 철학을 실천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 현대차·기아, ‘韓 기술대상’ 3개부문 수상

### 대통령상·장관상·동탑산업훈장

현대자동차·기아는 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기술대상’에서 대통령상·장관상·산업기술진흥 유공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기술대상’은 기술 개발과 실용화에 크게 기여한 기업 및 기술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에서 현대차·기아는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자동차 철강 부품 제조 혁신 기술’로 최고상인 ‘대한민국 기술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현대차·기아의 기초소재연구센터가 개발한 해당 기술은 기존 특수강 부품 제조 과정에서 필수로 수행되던 ‘열처리 공정’을 대폭 축소하거나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차·기아는 균일 경화 기술을 적용해 열처리 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특수 가공 및 성형 공법을 개발해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부품 물성을 확보했다.

또 착용로봇 ‘엑스블 솔더’는 ‘대한

화적 풍부함과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이번 컬렉션은 ▲인스티투토 데 비시온 ▲쿠리만주토 ▲메러디스로젠 갤러리 ▲니나 존슨 ▲베르멜료 ▲션켈리 ▲찰리 제임스 갤러리와 같은 세계 유수의 갤러리 7곳에서 선보이는 신진 및 기성 작가의 작품을 아우른다.

삼성전자아트스토어 큐레이터 다리아 그리는 “삼성 아트 스토어는 독특한 문화적 관점을 담은 작품들을 추가하며 컬렉션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삼성 TV 사용자들이 가정에서도 아트 바젤이 전하는 에너지를 느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왼쪽부터)현대차·기아 관철로보틱스팀 윤주영 팀장(장관상), 현대차·기아 차량제어 개발센터장 오종한 상무(동탑산업훈장), 현대차·기아 기초소재연구센터장 홍승현 상무(대통령상)가 기념촬영 하고 있다.

/현대차기아

민국 기술대상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로봇은 산업 현장의 ‘윌보기 작업’에서 작업자의 어깨 근력을 보조해 근골격계 부담과 피로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오종한 현대차·기아 차량제어개발센터장은 구동모터 기반의 차량 모션 제어 기술(E-VMC)을 개발한 공로로 ‘산업기술진흥 유공동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E-VMC는 EV차량의 주행 성능과 긴급 회피 성능을 높이고, 제어 오류를 예방해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김민술 인턴기자 mnskim@

## 라이엇게임즈, ‘국가유산지킴이’ 후원 협약

### 국내기업 최초 후원금 100억 돌파

라이엇게임즈가 매년 국가유산청에 전달해온 ‘국가유산지킴이’ 후원금이 올해 국내 기업 최초로 100억원을 돌파했다.

라이엇게임즈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LCK 아레나에서 ‘2025 국가유산지킴이 후원협약’을 맺고, 국외유산 환수와 국내 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해 8억원을 후원했다고 3일 밝혔다. 후원 약정식에는 허민 국

가유산청장, 조혁신 라이엇게임즈한 국대표, 광창용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후원을 통해 라이엇게임즈의 누적 기부금은 총 100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국가유산지킴이 후원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 기업 중 최대 규모이다. 올해 후원금은 국외유산 환수 및 보존처리 지원을 비롯해 국내 유산 보호 및 보존처리 지원, 궁궐 관람 서비스 개선 지원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 인사

◆**뉴시스** ◇전보 △마케팅본부 총괄팀장 김태훈 차장 ◇승진 △마케팅부 과장 대우 이은총

◆**Sh수협은행** ◇연임 △기업그룹 부행장 최민성 △여신지원그룹 부행장 이준석

### 부음

▲편집레씨벌세, 복진권(대한한의사협회 기획홍보국 홍보팀 대리)씨 조모상 = Sh 수협장례식장 백합(충남 보령시 대해로 258-9), 발인 4일 오전 11시 30분, 장지 보령모란공원. 041-932-4004.

# 자기 운명도 모르는 도사들



## 전형일의

## 세상이야기

70~80년대 세계적인 인기 팝그룹 보니  
엠(Boney M)의 히트곡 중 하나가 '라스푸  
틴(Rasputin)'이다.

라스푸틴은 러시아에서는 ‘괴승’으로, 영어권에서는 ‘미친 수도자’로 불리는 유명인이다. 서구권에서는 그와 관련한 서적만 수백 권이며 드라마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사이버 술사(術士)의 대명사다.

라스푸틴은 제정 러시아 말 혈우병으로 추정되는 황태자의 병세를 호전시키면서 세상을 놀라게 했다. '기적의 치유사'로 불리게 된 그는 이후 치료 능력과 예지력으로 마지막 황제 니콜라이 2세와 황후의 절대적 신임을 얻게 된다.

그는 수도사로 불리지만 신학을 공부하거나 성직을 맡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럼에도 라스푸틴은 황실의 비호 아래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정과 인신권은 물론 군사작전까지 개입했다. 심지어 황제가 나라를 비운 사이에는 그가 러시아를 섭정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의 전횡으로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민심은 돌아서도 황제는 그를 감싸기에 급급했다. 결국 그의 월권과 추잡한 행실로 귀족들이 그를 처단하기에 이르렀다. 이때가 1916년 12월이었고 아드름 10월 볼셰비키 혁명으로 황제 가족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처형되었다. 이로써 로마노프 왕가는 사라졌다. 기밀이 해제된 러시아 문서에 따르면 라스푸틴의 직접 사인은 이마에 박힌 총상.

이보다 앞선 1882년 조선에서는 임오군란 때 피신했던 고종 왕비 명성황후(민비)가 피란지 장호원에서 무당 박창렬을 만났다. 무당은 당시 앓음했던 민비에게 환궁을 예언했고 그대로 실현됐다.

왕비는 환궁할 때 무당과 동행했으며 그에게 ‘진실로 영험하다’는 의미의 ‘진령군(眞靈君)’이라는 군호를 내려주고 ‘언니’라 부르며 궁궐에 함께 살았다. 그 뒤 진령군은 창덕궁에서 함께 살다가 사당을 행거 나갔다. 노론 거두 우암 송시열 집터에 지은 사당 이름은 북관왕묘(北關王廟). 삼국지의 장수 관우, 즉 관왕을 모신 동묘(東廟, 東關王廟)와 같은 급이다. (‘오하기문(梧下記聞)’)

왕과 왕비는 모든 판단을 그녀에게 의지

했다. 고종 때에는 명성황후가, 명성황후 때에는 진령군이 있었다. 왕실에서는 굶이 끊이지 않았으며 그녀에게 줄을 대기 위해 탐관오리들이 줄을 썼다. 하지만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후 진령군의 그동안 죄상이 봇물 터지듯 나왔다. 1894년 전 형조참의 지석영은 “요사스러운 계집 진령군의 살점을 사람들이 씹어 먹으려 한다”고 상소했다. 신변의 위험을 느낀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공식적인 최후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어느 시대 어느 문화에서나 신(神)의 계시를 받았다는 사이비 예언자들이 있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능력 없는 통치자의 불안한 심리가 이들의 제물이 되었다. 신령(神靈)했다는 라스푸틴과 진령군은 민심 이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결국 나라는 모두 망하고 말았다. 더욱이 그들은 정작 자신들의 처참한 마지막은 알지 못했다.

윤석열 정권의 법사와 도시들도 마찬가지다. 본인이 원만한 도시보다 더 용하다고 자부한 영부인은 또 어떤가. 정권의 말로는 커닝 감옥 가는 자기 운명도 예측하지 못했다. 아들이 국사(國師)로 활동하면서 대통령실 이전부터 국정(國政)을 운영해 왔다. 전 언론인/명리학자/철학박사

저서 : 명리 인문학, 사주팔자 30문 30답

## ‘덤’이 된 가상자산 선진화



## 기지 수첩

안 승 진  
〈금융부〉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가상자산과 관련한 입법 관심이 높아졌지만 관심은 온통 스테이블코인으로 몰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올해 초부터 약속했던 가상자산 시장의 선진화는 부수적인 목표가 됐다.

스테이블코인이 주목받은 것은 지난 6월 대선부터다. 주요 후보들은 일제히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국민적 관심도도 늘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입법의 최우선과제가 됐다.

금융당국이 올해 초부터 약속했던 ‘가상  
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는 스테이블코인

과 묶여 하나의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취급되기 시작했고, 법안은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의 힘겨루기에 휩쓸렸다.

국내 가상자산업계는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엄격한 규제에 짓눌려왔다. 가상자산이 투기성 상품으로 여겨졌던 당시에는 적합한 규제였지만, 10년 가까이 규제가 제자리걸음하면서 업권의 어려움은 커져가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법안이 속도를 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주요국들은 이미 가상자산을 주요한 전략자산으로 분류하기 시작했고, 전통금융과의 융합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관련법은 가상자산 거래 시 실명 계좌를 요구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인의 거래는 금지된다. 지수 추종 상품을 비롯한 파생상품의 거래도 금지돼있다.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도 불가하다.

더 높은 수익률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국내 이용자들은 해외 거래소로 떠났고, 거래액의 절반은 해외로 유출됐다. 업권에 따르면 해외 거래소로 떠난 내국인의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연간 100조원 이상이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무규제보다는 규제가 낫다”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사후규제를 우려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가이드라인 내에서 영업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다. 앞서 사후규제의 전례가 있었던 만큼 시장에 진입하는 사업자는 거의 없고, 금융권에서도 가상자산 시장 진출을 머뭇거리는 상황이어서다.

정기권에서는 오는 10일까지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시장 전체를 규율하는 법안의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덤'이 된 모양새지만, 업계의 오랜 숙원이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

/asj1231@metroseoul.co.kr

#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할수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4	6	8			5			
				1			8	2
								4
		4		7	8		1	
3								7
			7		1	4		6
9								
		1	5			2		
				6			3	8
							5	

4	5		7				8		6
							1		
	6					3			
			6	3	9			2	
3									5
	1				2	7	3		
				8				7	
			4						
5		3				4			1
								1	8

문제출제: 손호성

서로로 크고도 놀이 할 때 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8	8	1	6	9	7	2	7
6	2	9	2	8	7	9	1	8
2	1	7	8	2	9	9	8	6
8	9	2	7	1	8	2	6	9
2	7	6	9	9	2	1	8	8
8	9	1	6	8	2	2	7	9
2	6	9	2	9	8	8	2	1
9	2	8	8	7	1	6	9	2
1	8	1	8	2	2	8	8	7

8	1	9	7	2	2	8	6	9
2	6	9	9	8	1	7	8	2
8	2	7	6	9	8	1	2	9
7	8	8	2	2	9	9	1	6
9	9	6	1	8	7	6	2	8
1	2	2	9	6	8	9	7	8
2	9	2	8	7	6	8	9	1
6	7	1	8	9	9	2	8	2
9	8	8	2	1	2	6	9	7

# 김상회의 四季

## 교육계 자기 희생



삼국지 적벽대전에서 주유는 조조를 속이려고 충직한 노장 황개를 희생시킨다. 나이 든 황개에게 곤장을 때려 조조 진영에 거짓 귀순하도록 꾸민 것이다. 귀순한 황개는 조조에게 거짓 정보를 전하고 적벽대전을 승리로 이끈다. 나의 고통을 통해 상대방의 경계심을 흐드는 고도의 전략이다. 이런 전략을 교육계라고 하는데 중국 병법 36계 중 서른네 번째 전략이다. 이는 단순히 남을 속이는 기만술이 아니다. 장기적 성공을 위해 단기적인 손해와 고통을 감수하는 자기 경영 전략이다. 시련과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들여, 나를 단련하는 도구이자 성공의 발판으로 삼는 지혜로운 선택이다. 이는 명리학에서 말하는 홍운이나 삼재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 훌륭한 역할을 한다.

삶은 오행의 균형 속에 놓여 있어야 하는데, 이 중 어느 하나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약하면 형충파해가 생긴다. 이러한 충돌의 시기가 바로 인생의 흉운이다. 흉운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흉운이 없으면 변화도 없다. 상처는 성장의 기회가 되고 고통은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교육계의 의미는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이다. 교육계와 깊이 연결되는 것은 편관이다. 편관은 예측할 수 없는 시련 압박 고통 스트레스를 상징한다. 그러나 편관은 동시에 권위 리더십 자제력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는 강인한 에너지를 의미한다. 편관의 운이 왔을 때 외부로 책임을 돌리거나 회피하지 않고 나의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을 통해 주변에서 인정받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 또는 작은 재물의 손실을 감수해서 장기적이고 더 큰 이득을 얻을 수도 있다. 결국 교육계는 편관의 고통을 길함으로 바꾸는, 명리학적 관점에서 가장 역동적인 전하위복 전략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http://www.saju4000.com)

<div>  <div>메트로미디어</div> </div>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0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10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 SKY 인문계 쏠림 심화… 모의지원 46%↑

서울·연세·고려대 정시 모의지원 분석  
인문 45.9% 증가, 자연 1.8% 감소  
사탐런 영향… 인문계열 경쟁 심화

2026학년도 대입 정시에서 최상위권 인문계열로 수험생이 몰리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3일 진학사가 고려대·서울대·연세대 정시모집을 대상으로 모의지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자연계열 지원은 전년보다 줄어든 반면 인문계열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의지원은 실제 원서접수 이전 단계에서 수험생들의 초기 관심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올해 세 대학에 접수된 모의지원 건수(예체능 제외)는 동일 시점 기준 4만7393건에서 5만988건으로 7.6% 증가했다. 그러나 계열별 흐름은 전혀 다르게 나타났다. 인문계열 모의지원은 전년도 1만4206건에서 2만723건으로 45.9%나 늘어난 반면, 자연계열은 2만9172건에서 2만8652건으로 1.8% 감소했다. 선발 규모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인문계열 쏠림이 한층 강화된 셈이다.

모의지원 건수를 모집인원으로 나눈

경쟁률을 살펴봐도 흐름은 뚜렷하다. 인문계열은 8.24에서 12.07로 46.5% 상승해 경쟁이 크게 치열해진 반면, 자연계열은 오히려 4.8% 감소했다.

특히 대학별 데이터를 보면 인문·자연 간 이동 격차가 더욱 명확해졌다. 고려대·서울대·연세대 모두 인문계열 모의지원이 일제히 증가한 반면 자연계열은 정체하거나 감소해 계열 간 관심도가 뚜렷하게 양극화된 모습이다.

이 같은 변화의 핵심 요인으로는 ‘사탐 응시 증가’가 지목된다. 올해 사회탐구 선택자가 크게 늘면서, 과탐 응시자가 필수이거나(서울대), 과탐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주는(고려대·연세대) 자연계열 모집단위에는 지원이 쉽지 않다.

반면 인문계열은 사탐 응시자에게 유리한 구조여서 자연계 수험생 일부가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연세대는 인문계열 지원 시 사탐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세 대학 중 인문계열 모의지원 증가폭이 가장 컸다. 대학별 인문계열 모의지원 증가율은 고려대 40.4%, 서울대 36.3%, 연세대 60.2%로 나타났다.

/이현진 기자

## 고양시, 소프트웨어대전서 투자유치 활동

일산테크노밸리, 경제자유구역 등  
홍보бус 열고 주요 개발사업 알리

고양시는 3일부터 5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5 대한민국 소프트웨어대전(AI × SoftWave 2025)’에 참가해 일산테크노밸리, 경제자유구역, 창릉3기신도시 등 주요 개발사업을 알리는 홍보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SW 전문 비즈니스 전시회이자 아시아 대표 SW마켓으로 성장하고 있는 ‘2025 대한민국 소프트웨어대전’은 소프트웨어, IT 분야 350여개 기업·단체가 약 550개의 부스를 마련해 운영하고, 패키지 SW, IT 서비스, 융합 SW, 인터넷 SW, 게임/콘텐츠 SW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과 투자자 등 2만여 명이 방문하는 대규모 전시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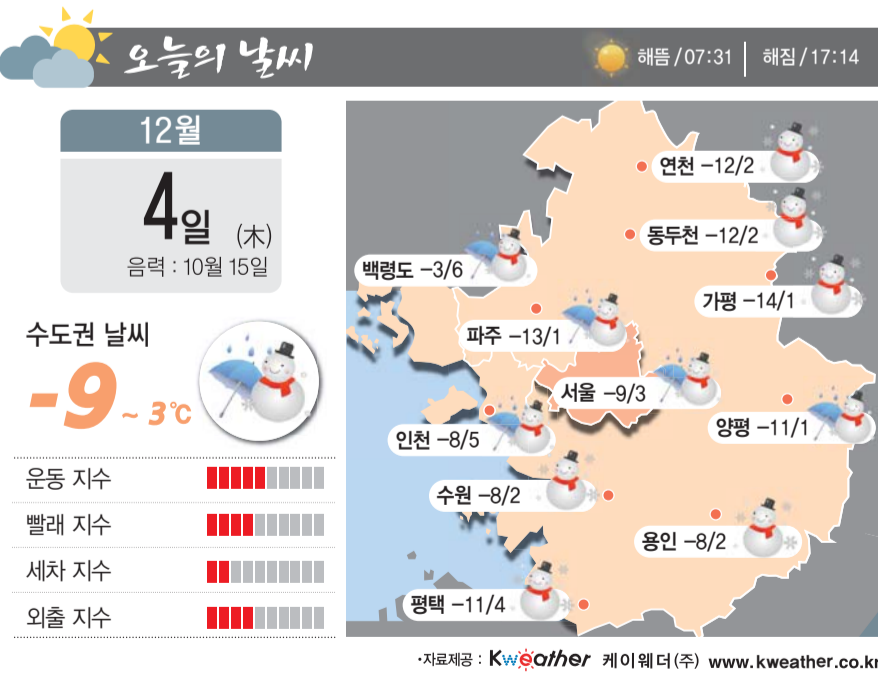
이번 행사에서 시는 일산테크노밸리

의 핵심 산업인 콘텐츠·소프트웨어·IT 분야 국내외 기업들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IR활동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4월 킨텍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의 제약·바이오 분야 전시회인 ‘제15회 국제의약품·바이오산업전’과 11월에 개최된 AI, 메타버스, 빅데이터 등 최신 디지털 기술과 콘텐츠 융복합 전시회 ‘2025 디지털미디어테크쇼’에서도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상담부스를 운영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1월 여의도에서 ‘2025 고양특례시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국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고양시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기업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투자환경 전반을 안내했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 단거리는 버스, 중거리는 지하철로 도시·교통정책, 빅데이터로 그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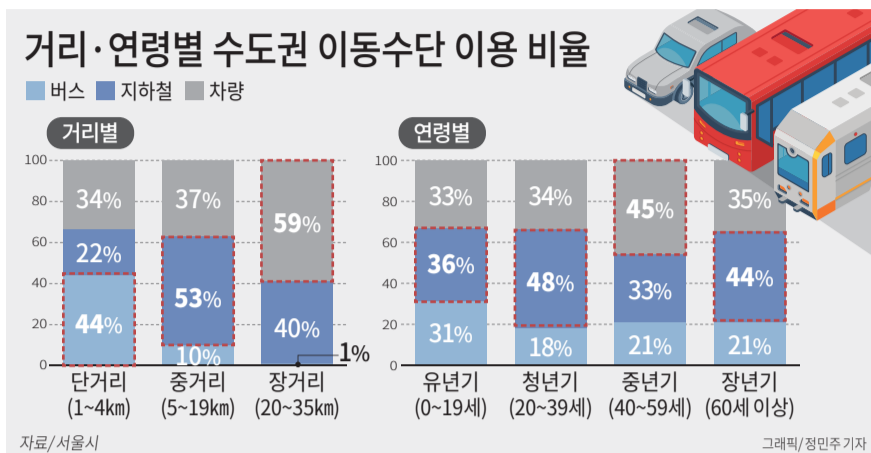
서울시, 수도권 시민 이동패턴 분석  
거리·연령·지역별 교통이용 달라  
청·장년 지하철, 중년층 차량 이용  
빅데이터·AI 기반 도시혁신 선도

수도권 시민의 이동 패턴이 거리·연령·지역별로 뚜렷하게 갈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거리는 버스, 중거리는 지하철, 장거리는 차량 이용이 두드러졌고, 청년층은 지하철, 중년층은 차량, 장년층은 다시 지하철을 가장 많이 이용했다. 서울·경기·인천 간 이동 수단 비중 역시 크게 달라 대중교통 중심의 서울과 차량 중심의 경기·인천이 대비됐다.

서울시는 수도권 시민의 이동 행태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정밀 분석한 결과, 이동 거리와 지역, 연령대에 따라 교통수단 선택이 뚜렷하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분석은 서울시와 KT가 공동 구축한 ‘수도권 생활이동 데이터’를 활용해 서울·경기·인천 전역을 250×250m 크기의 4만1023개 격자로 분할하고, 20분 단위로 이동량을 집계한 국내 최초의 통합 모빌리티 분석이다. 기존 시군구·읍면동(1186개 단위)보다 최대 35배 이상 세밀한 수준이다.

이번 분석 결과에서는 이동 거리별로 뚜렷한 교통수단 선택 경향이 나타났다. 단거리(1~4km)는 버스 이용이 가장 많았고, 중거리(5~19km)는 지하철, 장



거리(20~35km)는 차량 이용 비중이 가장 높았다.

연령대별 차이도 명확했다. 청년층(20~39세)은 지하철 이용이 48%로 가장 높았으며, 중년층(40~59세)은 차량 이용 비중이 45%로 가장 컸다. 장년층(60세 이상)은 지하철 이용 비중이 다시 44%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수도권 지역 간 이동에서도 차이가 컸다. 서울로 이동하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 비중이 60%로 가장 높았다. 서울 중심부는 지하철 접근성이 높고 직장·학교가 밀집해 있어 출근·통학 수요가 자연스럽게 대중교통 중심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반면 경기·인천 지역을 목적으로 하는 이동은 차량 이용이 68~7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서울 외곽 지역은 대중교통망이 상대적으로 덜 촘촘한 데다 직주 근접도가 낮아 차량 중심의 통행 구

조가 고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번 분석을 통해 수도권 광역교통 정책이 행정 경계가 아니라 실제 시민들의 생활권 이동 패턴을 기준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광역버스 최적 노선 도출, 생활SOC 입지 선정, 도로·보행환경 개선, 도시재생·역세권 개발 등 생활권 기반 교통정책 및 SOC 공급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강욱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수도권 시민이 실제로 어떤 이유로 어떤 수단을 선택해 이동하는지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교통·주거·도시 계획 전반을 정밀하게 설계할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AI·데이터 기반의 도시혁신을 선도하기 위해 시민 삶을 개선하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교육부 예산 106조… 지역대학·AI 인재 육성

교육부 내년도 예산 106.4조 확정  
대학육성·AI인재·유보통합 집중  
영유아특별회계 등 재원운용 변화

교육부 2026년도 예산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총 규모는 106조 3607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945억 원 증액됐다. 이번 예산안은 ▲지역대학 육성 ▲AI·이공계 인재양성 ▲유보통합 추진 ▲특별회계 구조 개편 등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전면에 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영유아특별회계 신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5년 연장이라는 재정 구조 변화가 함께 이뤄지며 향후 교육 재원의 운용 틀이 크게 달라지는 첫 해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2026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금융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2026년도 예산은 크게 ▲국가균형 성장을 위한 대학 육성 ▲AI·이공계 인재 양성 ▲유보통합 추진 및 보육환경 개선

세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대학·지역 혁신을 위한 투자는 3조 1448억원 규모로, 수도권 대학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거점국립대학이 연구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8855억원을 지원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RISE) 사업에는 2조 1403억원이 배정됐다.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사립대·전문대의 학과 구조 개편 및 특성화에도 1190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미래 핵심 산업을 이끌 AI 분야 투자는 3348억원이다. 인공지능(AI) 부트캠프는 기존 3개교에서 40개교로 대폭 확대되며, AI+X 융합 부트캠프 10개교도 새롭게 지원한다. 인공지능(AI) 거점대학 3개교를 신규 선정해 지역별 AI 교육·연구 기반도 강화한다. 두뇌한국21(BK21) 사업을 통해 17개 AI 교육연구단과 AI 융합 연구단 3개도 뒷받침한다.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본격 추진도 예산 편성의 핵심이다. 2026년에는 유아 무상교육·보육 대상을 5세에서 4~5

세로 확대해 4703억원을 투입하고, 0세 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대 3에서 1대 2로 개선하는 데 3262억원을 투자한다. 어린이집 아침돌봄 담당교사 수당 365억원도 신규 반영됐다.

특히 내년부터는 영유아특별회계가 신설된다. ‘영유아특별회계법’ 제정으로 일반회계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원화됐던 재원이 통합 운영되며, 교육세의 60%가 영유아특별회계로 전입된다. 이를 통해 유아 무상교육·보육과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등 국정과제 이행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2025년 일몰 예정이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2030년까지 5년 연장된다. 2026년부터 금융·보험업에 부과되는 교육세가 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입되면서, 2027년부터 약 1조 3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재원은 지역대학 육성과 AI 인재 양성 등 국정과제에 투입된다.

/이현진 기자

### 메트로 한줄뉴스



▲트럼프, 한국 ‘미국 착취 동맹국’ 취급…내각회의 발언 논란  
▲“‘G7 회의에 초청 검토’ 프랑스에 日, 신중 대응 요구”  
/사진 뉴시스

▲‘건강 이상설’ 트럼프, 국무회의 중 또 스르륵…백악관 “주의 깊게 경청”  
▲日기업 9곳, 트럼프 ‘관세’ 상대 소송…“납부 관세 전액 돌려달라”

▲트럼프 “소말리아인은 쓰레기”…미네소타서 이민 단속 방침  
▲日혼다·닛산·미쓰비시 등 자동차 3사, 美서 공동 생산 검토



편의점  
패션·뷰티 가득  
특화전략  
L1

# metro<sup>®</sup>

Life

CJ올리브영  
외국인 매출  
1조 달성  
L2



## K-허브에서 얻은 해법... K-뷰티 새 기준으로 자리잡다

###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 아누아 '어성초'

글로벌 뷰티 브랜드 '아누아'는 피부에 가장 효과적인 자연 유래 원료와 더마 성분을 엄선한 스킨케어 브랜드다. 2019년 설립 이후 해외 시장에서 K뷰티 성장을 이끌고 있다. 매년 폭발적인 성장률을 기록해 왔고 2022년부터 미국 최대 온라인몰 아마존을 통해 본격적으로 북미 지역으로 진출했다.

2024년 7월 열린 아마존의 프라이데이 행사에서 전년 대비 537%의 매출 성장을 거뒀고, 같은 해 11월 블랙프라이데이에서는 일 판매량 증가세가 800%에 달했다. 특히 아누아는 대표 제품군 '어성초' 제품들을 앞세워 글로벌 스킨케어 부문에서 브랜드 입지를 다졌다.

**자연원료 엄선한 스킨케어 브랜드  
어성초 성분 앞세워 글로벌시장 주도  
고함량 어성초 함유, 진정효과 뛰어나  
피부염증 완화하고 재생력 강화까지**

아울러 아누아를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 빌더 기업 더파운데르즈의 지난해 연간 매출은 4278억원이며 이 중 해외 매출은 3644억원이다.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85% 넘는 비중을 차지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이 입증됐다. 또 전체 매출과 해외 매출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99%, 377%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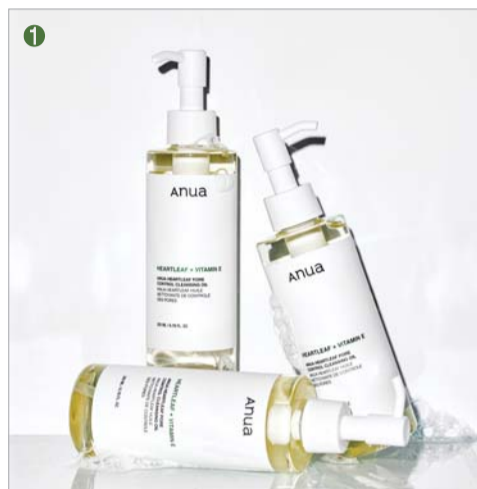
K뷰티 브랜드로는 처음 북미 아마존 클렌징 오일 카테고리에서 1위를 차지한 '어성초 포어 컨트롤 클렌징 오일'이 아누아 주력 제품이다.

우선 어성초 성분을 고함량으로 함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자연 유래 추출물과 식물성 오일을 결합해 피부를 해치지 않으면서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다. 메이크업부터 블랙헤드까지 말끔하게 제거하는 세정력, 물과 기름이 섞이는 부드러운 유화 과정과 순한 마무리, 클렌징 후 느껴지는 산뜻함 등에 대한 제품 후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아누아의 어성초는 글로벌 뷰티 시장에서 'K 허브'로 급부상했다.

이와 함께 '어성초 77 수딩 토너'도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아누아 브랜드를 각인시킨 제품으로 꼽힌다.

어성초 토너는 정제수 비율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어성초 추출물에 병풍 추출물, 판테놀 등을 더한 제품이다. 피부 온도를 낮춰주는 등 피부 진정 효과를 갖췄다. 특히 약모밀 추출물은 77%나 처방해 피부 염증이 완화하고 피부 재생력은 강화해 준다.

이처럼 클렌징, 토너 등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제품들을 앞세워 브랜드 존재감을 키워온 아누아는 보다 진화한 방법으



로 더마 성분을 일상 스킨케어법에 접목시키기 위한 제품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아누아는 '인공눈물에서 찾은 스킨케어 인사이트'를 주제로 새로운 유형의 신제품 'PDRN 히알루론산 캡슐 100 세럼'을 내놓은 것이다.

PDRN(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티드)은 화장품, 피부 미용, 의료 등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신소재다. 피부 재생, 회복 등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알려졌다.

아누아는 국내 최초로 PDRN 성분을 인공눈물 용기에 담아 세럼 제품으로 구현했다. 화장품을 위한 유효 성분과 의약품 형태를 동시에 응용하는 시도는 뷰티 업계에서 전례가 없었다.

스마트캡슐 100% 공법을 적용해 PDRN 성분의 피부 침투력을 기존 제품보다 3배 이상 끌어올린 것도 차별화 점이다. 물처럼 가벼운 제형이지만 깊은 보습 효과를 전달해 수분을 머금은 듯 맑고 투명한 피부를 관리할 수 있다.

**인공눈물 용기에 담은 PDRN 세럼  
수분광 캡슐 적용한 캡슐미스트 등  
소비자 피부고민 맞춘 신제품 선배**

**뷰티어워즈 수상, 패션위크 참여 등  
뛰어난 제품으로 세계에서 영향력↑**

아누아는 'PDRN 히알루론산 캡슐 100 세럼' 인공눈물 용기의 인기에 힘입어 토너, 수분 크림, 패드, 마스크팩, 미스트까지 PDRN 제품군을 대폭 확장했다.

최근 공개한 'PDRN 캡슐 미스트'는 PDRN 세럼의 핵심 성분을 미스트 형태로 전환한 것이다. 세럼 수준의 깊은 보습력과 피부 진정 효과를 보다 간편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PDRN, 콜라겐, 히알루론산 성분을 한 번에 담은 '수분광 캡슐'을 적용해 피부 속부터 차오르는 자연스러운 광채를 선사한다.

아누아는 이처럼 자연에서 찾은 원료를 기반으로 소비자 피부 고민을 이해하면서 '고객 관점'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품 개발 시



① '어성초' 포어 컨트롤 클렌징 오일  
② 'PDRN 히알루론산 캡슐 100 세럼' 인공눈물 용기  
③ '라이스 70 글로우 콜라겐 마스크' /아누아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품평 만족도가 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만 제품을 출시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한 개의 제품이 탄생하기까지 평균 2160시간을 투자해 검증하며 제품 출시 후에도 후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아누아는 해외 전역에서 K뷰티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아누아는 최근 미국 NBC 방송의 대표 아침 프로그램 투데이 쇼에서 진행하는 '쇼 투데이 2025 뷰티 어워즈'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고의 보습 마스크' 부문에서 아누아의 라이스 70 글로우 콜라겐 마스크가 선정됐다. 라이스 70 글로우 콜라겐 마스크는 라이스, 콜라겐 등 핵심 유효 성분을 고농축으로 담은 고기능성 쥬 마스크다. 일반 쥬겨수 대비 3배 높은 미백 효능이 집약돼 피부 톤과 윤기를 개선해 준다. 무엇보다 글로벌 시장에서 최신 K뷰티 유행으로 주목받는 '글래스 스킨' 연출에 적합한 제품으로 평가받는다.

신흥 K뷰티 지역인 유럽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아누아는 지난 9월 영국에서 열린 2026 S/S 런던 패션위크에서 디자이너 해리(HARRI) 패션쇼의 공식 후원사로 참여했다. 국내 브랜드 중 유일하게 스킨케어 제품을 단독 제공했다.

아누아 관계자는 "브랜드 철학과 제품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전 세계 소비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앞으로도 K뷰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 개발에 더욱 매진하며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어성초' 77 수딩 토너



▲'9년만의 삼성 복귀' 최형우 "새로운 시작하는 기분...오직 우승 목표" /사진 뉴시스  
▲스페인, 독일 꺾고 UEFA 여자 네이션스리그 우승...2연패 달성

▲KBO, 장정석에 무기실격·김종국에 50G 출장 정지...봉준근 봉사활동  
▲'골프 황제' 우즈 "허리 회복 더뎠다...필드 복귀 시기는 미정"

▲'2골 1도움' 대전 서진수, K리그1 최종 38라운드 MVP  
▲이태훈의 그림 같은 어프로치...KPGA 공식 S NS 최다 조희수 1위

메트로 한줄뉴스

SAMSUNG



Galaxy Z Fold7 | Z Flip7  
Galaxy AI ✨

samsung.com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특정 AI 기능을 사용하려면 삼성계정 로그인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닷컴에서

